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韓國의 象徴에 관한 研究

— 南韓 9道の 視覺的 Symbol 表現方向을 爲하여

生活美術學科

車賢珠

1986

# 韓國의 象徴에 관한 研究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85年 11月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生活美術學科 車 賢 珠

# 車賢珠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指導教授

이 영 희



審査委員

김 영 기



윤 태 선



오 병 권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 目 次

論文概要 .....	v
I. 序 論 .....	1
A. 研究의 目的 .....	1
B. 研究의 範圍 및 方法 .....	3
II. 韓國의 思想 .....	4
A. 韓國의 諸思想과 그 脈絡 .....	4
1. 檀君神仙思想의 時代 .....	4
2. 佛教 圖讖思想의 時代 .....	5
3. 儒教性理學思想의 時代 .....	6
4. 實學 開化思想의 時代 .....	7
5. 弘益民族宗教思想의 時代 .....	8
B. 韓國의 巫俗思想 .....	9
1. 神靈觀 .....	10
2. 宇宙觀 .....	11
3. 人間觀 .....	12
III. 韓國의 文化 .....	14
A. 韓國의 文化的 背景 .....	15
1. 風土的 영향 .....	16
2. 他 文化圈의 영향 .....	17
3. 韓國文化의 歷史的 發展省略 .....	20

B. 各道の 地域的 特性과 文化 .....	21
1. 各道の 風土 .....	22
2. 各道の 文化 背景 .....	28
3. 各道の 民俗文化 .....	35
4. 各道の 퍼스널리티 .....	40
C. 各道の 巫俗文化와 生活 .....	46
IV. 韓國의 象徴 .....	53
A. 韓國의 象徴的 要素 .....	54
B. 各道の 象徴的 要素 .....	62
1. 各道の 象徴的 要素 抽出 .....	62
2. 各道の 象徴的 要素 分析綜合 .....	63
V. 象徴의 視覺的 表現 方向 .....	75
A. 韓國의 傳統的 表現 .....	75
1. 時代變遷에 따른 表現特色 .....	75
2. 表現特色의 要因 .....	76
3. 傳統的 表現의 綜合 .....	78
B. 傳統的 表現의 現代的 意義 .....	79
C. 바람직한 韓國的 象徴을 위한 視覺表現 方向 .....	82
VI. 結 論 .....	86
參考文獻 .....	89
英文抄錄 .....	91

## 論 文 概 要

우리의 傳統, 우리의 文化등 우리의 것을 찾으려는 움직임의 절정에 서서 과연 우리의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 일까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여러분야에서 진행 중이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비록 많은 內外的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좀더 나은 미래의 文化를 이룩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올바른 우리것을 찾는 작업이 꼭 필요한 것임을 주장하는 바일 것이다.

올바른 우리 것을 찾는 작업의 意義는 우리民族의 긍지와 자부심 주체성을 확립하여 우리民族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외부세계에 올바르게 알리고 인식시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디자인 분야에서 하여야 할 일은 실로 많고 다양하며 그 임무 또한 막중한 것이다.

그 중에서 시각물을 통한 방법이 가장 초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많은 연구가 실질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것을 시각화하는 연구중의 일환으로써 상징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았는데 이는 그 역할 면에 있어서나 기능면에 있어서 모든 시각표현에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론을 4부분으로 나누어 論하였다.

Ⅱ章에서는 우리民族 정신사에 영향을 주어진 사상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민족 정신의 흐름과 특히 민간신앙으로서의 무속사상의 큰 의의를 알 수 있었다.

Ⅲ章에서는 우리의 전반文化와 이를 바탕으로 한 各道의 文化를 여러 측면에서 조명해 봄으로써 현재 우리文化가 있기까지의 배경과 文化요소들이 지금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Ⅳ장에서는 Ⅱ, Ⅲ章에서 論한 바 있는 우리의 사상과 文化를 기초로 하여 관련요소들을 추출하고 분석, 종합하여 상징을 찾음으로써 우리의 상징이 우리민족이 생활하고 있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로 얻어진 우리나라 9道의 象徴요소는 아래와 같다.

① 경기도<한강>, ② 강원도<태백산맥>, 충청북도<정二品소나무> 충청남도<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전라북도<농악>, 전라남도<관소리>, 경상북도<금관>, 경상남도<거북선>, 제주도<한라산>.

V장에서는 상징의 시각적 표현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전통의 의의와 이것의 현대적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적인 시각표현 방향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1. 바람직한 미래상 설정,

2. 우리文化에 대한 긍지

3. 주체성 확립등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금까지의 상징에 대한 연구가 우리것을 찾는 데 하나의 기반이 되어 우리민족의 화합과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알리고 인식시키는데에 하나의 계기점이 되길 바란다.

# I. 序 論

## A. 研究의 目的

우리는 우리만이 간직할 수 있는 독특한 思想과 文化, 傳統, 그리고 우리民族의 生活터전인 독립된 國土를 지니고 있다. 좀더 세부적으로는 地域마다 독특한 個性을 여러 측면에서 나타내고 있다.

옛 地圖인 八道總圖(1463?)를 비롯하여 東國地圖(1970), 靑邱圖(1834), 大東輿地圖에서 現在의 地圖에 이르기까지 그 境界를 정할 때는 地理적으로 自然스럽게 갈랐지만, 그 境界에 따라서 風土와 性質이 매우 특이함은 흥미로운 일이다. 또한 우리民族은 北方에서 南下한 같은 同族임에도 불구하고 各道에 따라서 말이 다르고 性格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各道는 地理여건에 따라 境界지어졌고 독특한 性格과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世界 속에서의 韓國이 韓國 나름의 個性있는 이미지 要素들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나라 안의 各道들도 독특한 道의 이미지 要素들을 지니고 있다.

이 要素들은 外的 表現物 즉 旗, 觀光自源, 都市環境 속의 건축물, 生活環境 등으로 나타내 질 수가 있다.

그러나 지난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살펴볼 때 고도경제성장이라는 外的 변모로 빠르게 움직여 왔다. 都市는 단시일에 建設되고 地方도 內實을 다질사이 없이 外形이 확장되었다. 더불어서 外國문화의 수용 또



한 급격하였다.

이로인하여 우리는 잠시동안이나마 우리의 것 보다는 외국의 물질을 숭상하는 시대적 풍조를 낳았으나 이제는 어느정도의 성장을 통하여 물질의 중요성과 함께 주체성 즉 우리민족의 얼에 대한 문제가 藝術全般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에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現實적으로 지금까지 이러한 작업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여건이 형성되어 있질 않았고, 또 단시일에 되어질 성질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상당히 오랜 時日에 걸쳐서 이루어져야할 방대한 문제임으로 어려운 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연구차원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나, 현재의 이러한 현상에 다소나마 자극이 될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램에서 고유한 한국적인 것의 문제, 미래를 표상할 이미지 문제, 세계에 표방할 현대적 전통미의 문제 등을 위하여 디자이너 지망학도의 눈은 보다 구체적인 한국적 개념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작은 사명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을 위해 생각한 것이 상징의 문제로, 象徴이란 대표하는 것으로써 거기에는 함축적인 意味와 價値가 담겨있으며 Communication으로서의 情緒와 觀念이 포함되어 있어, 그것을 기준하여 國家는 國家되로, 地域은 地域대로의 Identity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象徴은 점점 복잡해져 가는 現代의 특성이 강화되면

될수록 야기되는 國民들 사이의 分化나 地域民들 사이의 分化를 한 데 뭉칠 수 있는 求心點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本 研究는 이점을 생각하여 위로부터의 시점에서는 韓國 전체를 아래로부터의 시점에서는 各道를 기준하여 象徴을 찾아보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表現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에 意義가 있다.

## B. 研究의 範圍 및 方法

本 研究는 우리나라 및 各道의 Identity 形成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象徴들을 찾고 이것들을 視覺적으로 表現할 수 있는 方向을 제시하고자 함이니, 좀더 根源的인 문제로 접근하여, 韓國文化史的 立場에서 象徴들의 바탕이 되고 있는 韓國의 思想과 文化의 脈을 더듬어 보는데 意義를 두고자 하며, 그 脈에 흐르고 있는 內的이미지, 情神的 價値 文化的 潛在力을 昇華시킬 수 있는 象徴要素들을 抽出 分析 綜合하려 한다.

이차적으로 表現문제에 있어서 傳統的 價値와 現代的 價値의 意義를 새롭게 照明함으로써 바람직한 表現의 可能性을 제시하려고 한다.

本 研究는 주로 문헌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밝혀둘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 여건상 南·北韓을 모두 다룰 수가 없으므로 南韓의 국한하여 研究될 것이라는 것과 이 연구는 한국문화사 측면의 접근이 상당부분 차지 할 것이나 專攻에 따른 力不足으로 기본적인 문헌자료의 引用이 주가 될 것임을 밝힌다.

## Ⅱ. 韓國의 思想

우리 민족정신사의 첫 단계는 단군신선思想의 時代이다. 이 때는 원시사회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원시적 샤아마니즘(Shamanism)이 지배적인 思考形態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古朝鮮의 神仙思想은 高句麗에서는 皂衣仙人, 신라에서는 花郎들에게 전수되었으며, 八關會의 행사를 통해서 高麗시대로 계승되었다. 후일에는 中國에서 전래되어 온 道敎와 융합하며 昭格殿을 포함한 기타 巫覡信仰으로 남아서 조선시대를 거쳐 近來까지 韓民族의 生活에 중요한 부분으로 이어져 왔다.

고등종교사상으로서의 儒敎, 佛敎, 仙敎가 韓國人의 思想에 支柱를 이루어 온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近代에 와서는 기독교와 서구과학 문명 그리고 민족주의 사조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sup>1</sup>

본 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상들을 傳來된 시대별로 나누어 간략하게 論하고, 특히 韓國의 모든 思想에 영향을 주어진 巫俗思想을 독립하여 論하려 한다.

### A. 韓國의 諸思想과 그 脈絡

#### 1. 檀君神仙思想의 時代

古代 韓民族이 지녔던 民族信仰의 母體로서의 檀君思想은 韓民族의

---

<sup>1</sup> 國民倫理學會(1983), 「韓國의 傳統思想」(서울: 螢雪出版社) pp. 221-222.

집단적 소산이며 또한 무의적인 魂의 구현과 같은 것이다.

당시는 山川草木·日·月·星·辰에 聖靈이 깃들어 있으며, 인간의 吉·凶·禍福은 그 聖靈의 마음가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時代였다.<sup>2</sup> 그래서 이러한 聖靈에 대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巫堂이 민중생활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으며, 政治的으로는 祭政一致의 時代로 나타난 것도 이해할 수가 있는 일이다.

당시 崇仰된 聖靈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天神·地神·人靈이였으며 이것이 太陽崇拜·山嶽崇拜·祖上崇拜로 나타났다. 이러한 聖靈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단군」이다. 여기서 檀君神話가 나오고 白頭山이 古朝鮮 民族의 聖域이 된다.<sup>3</sup>

## 2. 佛敎 圖讖思想의 時代

三國時代에 와서 中國文化가 韓半島로 흘러 들어오는 과정에서 儒·佛·仙 三敎가 古朝鮮의 檀君 神仙思想의 바탕위에서 자유경쟁을 벌여왔다. 그 중 武를 숭상했던 고구려에는 道敎가 우세하였던 것 같고, 文을 숭상했던 백제는 佛敎와 儒敎가 같이 興旺하였지만 日本으로 再輸出되어 거기서 개화하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중의 하나는 그 나라가 文武를 함께 숭상하였을 뿐 아니라 佛敎가 護國佛敎의 形態로 발달하였기 때문이었다. 또 한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中國의 佛敎를 盲目的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護國과 統一이라

---

<sup>2</sup> 金得梲(1963), 「韓國 宗教史」(서울: 에펠出版社), pp. 40-54.

<sup>3</sup> 國民倫理學會(1983), pp.221-222.

는 時代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체적이며, 창의적인 佛教思想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現世치중적이며 政治지향적인 佛教는 高麗朝에 와서 더욱 성행하였으며, 高麗시조 王建이 불교진흥에 주력한 것도 護國과 高麗朝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을 위한 것이다.

韓國의 佛教가 彼岸의 극락보다도 現實 이익중심으로 성행한 나머지 盛衰禍福을 예언하는 圖讖說이나 宅地·都邑·墓地의 地勢를 가지고 장차의 행운을 기약하는 風水圖讖說과 결합하게 된 것은 신라말엽 때부터였고, 高麗에 와서는 이것이 거국적인 신앙이 된다.

이처럼 佛教는 종교적인 사명감에서 보다는 「政法玉國」, 「眞護國家」, 「四民平等」 같은 현실적인 國家이익을 추구하는 思想的인 요구에서 수용되었다.<sup>4</sup>

### 3. 儒敎性理學思想의 時代

高麗佛教의 부패와 타락이 극도에 달한 가운데, 李成桂가 朝鮮王朝를 건립한 시기에 程失學이 朝鮮의 國敎요, 官學으로 부상하였다. 이것도 정치적으로는 「王道主義」, 사회적으로는 「三綱五倫思想」, 경제적으로는 「農業土地經濟」를 토대로하여 士大夫계급에 의한 儒敎的 「家父長主義」와 封建的 「專制君主」 통치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정립되었다.

儒敎가 권력보다는 「德治主義」, 刑罰보다는 통치계급의 「도덕적 모범」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여 禮의 확립을 통한 「사회질서를 확립」

---

<sup>4</sup> 앞 글, pp. 223-225.

하고자 하는 점, 그리고 통치계급의 정치적·사회적 책임과 아울러 꾸준한 정신수양을 통한 自制를 강조하는 점으로 보아서 우수한 통치 철학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儒敎性理學의 觀念的 「이상주의」와 普遍的 「합리주의」는 국민대중의 현실생활로부터 유리된 形而上學으로서 문제점을 낳았으므로, 다만 그것이 上智爲主의 학문으로서 朝鮮의 전체적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며 기존질서에 대한 誠敬을 강조하는데 그친 것이다.<sup>5</sup>

#### 4. 實學 開化思想의 時代

17·8 세기에 서서히 싹터오던 實學思想은 18·9 세기에 全盛期에 들어 선다. 그것은 性理學이 내세우는 사회윤리적 이상은 경제적 기초가 튼튼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金 時習과 李 栗谷의 富國強兵 諸方案—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祖稅制改革, 貢物防納制, 水米法 방위력강화를 위한 城堡修築 軍籍整理, 補充兵制度을 시초로 하여 政治, 經濟, 軍事 등 각종 제도의 歷史와 現實을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學文的 토대위에서 이상적 사회의 실현을 꿈꾸게 되었다. 그러나, 實學의 研究대상은 그 폭을 더 넓혀서 經學, 地理學, 自然科學, 農學등 여러 방면에 걸친 研究를 하였는데, 그들의 學文이 實事求是, 利用厚生 등 현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들 實學者들의 研究방법은 實證的이었으며, 모든 결론을 확실한 내력에 의하여 내렸으므로 과거의 傳統이나 스승의 說에 맹종하려고 하

---

<sup>5</sup> 앞 글, pp.225-227.

지를 았았다.

이러한 實學의 발생의의는 우리 民族이 自我에 눈이 뜨기 시작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sup>6</sup>

##### 5. 弘益民族宗教思想의 時代

韓國의 新興民族宗教는 韓末의 부패 타락한 통치체제에 대한 民衆의 不信과 絶望 그리고 외세의 침입과 위기의식의 산물이다. 이러한 암흑과 絶望속에서 民衆의 광명과 희망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그들의 기도로 나타나고 그들의 오랜 기도는 하나의 宗教的 확신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것이 신흥민족종교가 출현하게 된 배경이다.

東學, 甌山教, 圓佛敎가 바로 이것인데, 위의 三宗教는 韓民族의 土俗信仰을 바탕으로 儒·佛·仙 三敎를 통합한 民衆信仰 운동으로 天人合一하여 天主의 造化力에 의하여 理想世界를 창조하고자 한 것이다. 이 理想世界란 統合·和解·協同·收藏의 새로운 時代로서 萬民平等·事人如天·人尊思想을 토대로 하여 한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의 평화질서가 펼쳐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新興宗教란 信仰의 대상으로서의 宗教라기 보다는 외세의 억압에 대한 政治的인 주권회복운동이었으며 또 民主的인 政治·社會改革운동으로 民衆에게 새롭게 實現되어야 할 가치관과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한 것이다.<sup>7</sup>

---

<sup>6</sup> 앞 글, pp. 227-229.

<sup>7</sup> 앞 글, pp. 229-231.

## B. 韓國의 巫俗思想

샤머니즘은 神靈과의 접촉을 통하여 福을 빌고 災殃을 물리침으로써 人間의 온갖 소망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무당을 중심으로 한 原始的인 呪術宗教的 現象이다.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先祖들은 아기를 낳으면 「삼신메」를 올리고 병들면 「푸닥거리」로 풀고, 혼사에는 「혼인제」, 初喪나면 「자리거리」, 亡者의 魂魄은 「薦慶굿」으로 저승에 보내어 安住케 하였다. 그리고 온 동네의 平安과 稟年을 빌기 위하여 당굿이나 地神祭를 지내며 수천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살아 왔다.

밖에서 佛敎·儒敎·道敎 등의 大宗教들이 傳來되어 크게 降盛하였으나 그 어느 하나도 샤머니즘을 완전히 제압해 본 일이 없었다. 오히려 이들 外來宗教가 受容過程에서 샤머니즘에 習合됨으로써 만이 땅에 土着할 수 있었으며, 變質하여서 宗教의 本來的인 機能을 喪失하게 되었던 것이다.

샤머니즘은 支配宗教에 눌리고 識者들의 賤視를 받으면서도 婦女者들과 社會의 底邊에 깔린 庶民層의 信心에 迎合傳承되어 民間信仰의 主流를 이루면서 綿綿히 흘러내려 왔다. 샤머니즘은 오늘날도 살아있는 宗教로 이 百姓의 골수에 깊이 배여 무서운 魔力으로 그 精神과 生活에 至大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샤먼의 宗教思想은 샤먼의 神歌, 神話空唱, 巫經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表現은 모두 샤먼의 종교적 체험이 밖으로 表出된 것이다. 宗教的 表現은 희미하던 體驗의 내용을 客觀化함으로써 확실하게 만



들어 준다.

종교적 표현 현상은 크게 思想, 行爲, 社會的인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sup>8</sup>

본 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思想的 측면이므로 여기서도 샤먼의 思想을 3가지 表現 즉 1. 神靈觀 2. 宇宙觀 3. 人間觀 으로 분류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샤먼의 宗教思想은 高等宗教의 그것과 비교하면 원시적인 단계에서 머물고 있으나 샤머니즘에는 그 나름의 思想的 表現이 있다. 사상적 표현의 내용은 주로 神靈의 本性, 宇宙의 本성과 運命, 人間의 本성과 운명에 관한 생각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神靈과 宇宙와 人間이란 세 實在의 관계가 그 초점이다.

### 1. 神靈觀

샤먼의 信仰對象이 되고 있는 神靈들은 多靈崇拜 (Poly-demonism) 또 多神論 (Polytheism) 적인 原始宗教이다.

우리나라 샤머니즘의 信仰대상의 약 60 퍼센트는 地神, 山神, 水神 등의 自然神系의 神靈들이라고 한다. 이같은 神靈의 경향은 우리民族의 오랜 傳統的인 農耕的 社會構造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巫神의 세계에도 그렇게 뚜렷하지는 못하여도 어느 정도의 계급순위가 없지 않다. 最高神을 하느님 (天神) 으로 하고 그 밑에 地神·

---

<sup>8</sup> 국제문화재단 (1982), 「韓國의 思想」 (서울: 時事英語社), pp.13-14.

山神·風神 등 여러 神靈들이 각각 특정한 職分을 담당하고 있다. 上界에서 하나님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日神·月神·星神 등이 있어다스린다. 中界는 地神·山神·水神·人神 등이 다스리고, 下界에는 十王神을 비롯하여 여러 신령들이 다스린다고 한다. 이처럼 샤먼의 神靈에 대한 觀念은 機能神觀이라고 할 수 있다.

샤먼의 神觀에서는 神靈의 人格性이나 超越性을 찾아 보기가 어렵다. 샤먼의 萬神殿(Pantheon)에는 신령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인다. 따라서 佛敎, 儒敎, 道敎의 神들은 거의 모두 샤먼의 神仰대상으로 받아지고 있다.<sup>9</sup>

## 2. 宇宙觀

샤먼의 모든 思想的 表現 밑바닥에는 애니미즘(Animism)적인 원시적 思考方式이 깔려 있다. 애니미즘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 우주간의 森羅萬象은 모두 精靈(anima)에 힘입어 존재한다고 믿는 精靈信仰이다. 애니미즘의 세계는 生命의 社會요 葛藤과 힘의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는 모든 만물이 呪術的 因果律로 서로 얽혀 있다. 그러므로 이 精靈의 世界에는 偶然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믿는다.

샤먼의 종교사상은 이러한 原初的이고 애니미즘적인 宇宙觀을 전체로 하여 펼쳐지고 있다. 샤먼들은 神靈觀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우주가 天上界와 地上界, 地下界의 三層構造로 형성되어 있다고 믿는다. 이 우주는 하나의 커다란 기둥으로 받쳐 있는 거대한 三層집과 같다. 天上世界는 光明界로 天神과 日月星辰 같은 善神들이 존재하고,

<sup>9</sup> 앞 글, pp. 26-27.

地上界(中界)에는 人類를 비롯하여 금수초목등 만물이 살고 있고, 地下界는 暗黑界로 못된 惡鬼들과 惡靈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에 있어서는 宇宙觀이 비교적으로 단순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 3. 人間觀

샤머니즘에서도 사람은 靈과 肉을 받고 이 世上에 태어난다고 믿는다. 人間의 生死禍福, 興亡盛衰는 超人的인 神靈들의 作用으로 좌우되는 것으로 믿는다. 이를테면 北斗七星은 人間의 壽福을 다스리고, 帝釋神은 어린이들을 守護하고, 大監神은 財福을 가져다 주고, 터주신은 主婦를 보호한다고 믿는다. 마마는 胡鬼 眠疾은 忘人, 精神病은 精鬼의 탈로 믿는다. 이렇듯 人間의 모든吉凶은 오로지 神靈의 뜻에 달렸다고 한다. 잘되어도 鬼神 덕이요, 못되어도 鬼神 탓이라고 한다. 이렇듯 샤머니즘은 인생만사를 밖으로 投射함으로 해결하려 든다.

사람이 죽으면 목숨은 끊어지고 肉體는 썩어 없어지나 靈魂만은 없어지지 않고 저승(下界)으로 간다고 믿는다. 靈魂不滅의 信仰이 나타나고 있다.<sup>11</sup>

샤머니즘은 先史時代로부터 現今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이 民族의 歷史過程을 함께 흘러내리면서 祈禱와 祭祀, 占卜과 呪術로 민중의 所願成就를 빌어 주고 不安과 葛藤을 해소하여 주는 昇化作用을 하여 왔다. 그리고 밖에서 大宗教들이 이 땅에 傳來될 때마다 受容基盤으

<sup>10</sup> 앞 글, pp.28-29.

<sup>11</sup> 앞 글, p.29.

로서 이들 外來宗教를 土着化시켜 왔다. 外來宗教들은 샤머니즘에 흡합되어 이 땅에 토착화하였으나 그 결과로 큰 變容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샤머니즘은 歷史過程에서 外來宗教들에 눌리어 차츰 밀려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샤머니즘은 民間信仰으로서 社會 下層民의 精神과 生活을 강하게 支配함으로서 민중의 意識構造 형성에 至大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샤머니즘은 長久한 歷史를 통하여 이 民族의 原始文化를 전승하고 보존하는 저장고로서도 크게 공헌하였다. 韓國의 原始的·思想 神話, 歌舞, 民俗놀이 등은 거의 모두가 샤머니즘을 鋼脈으로 하고 傳承된 遺産이요, 文化傳統이다. 이렇듯 샤머니즘은 韓國의 基層文化의 형성하고 있는 民間信仰의 核으로서 민중의 思考樣式과 行動樣式에 결정적인 영향책을 행사하고 있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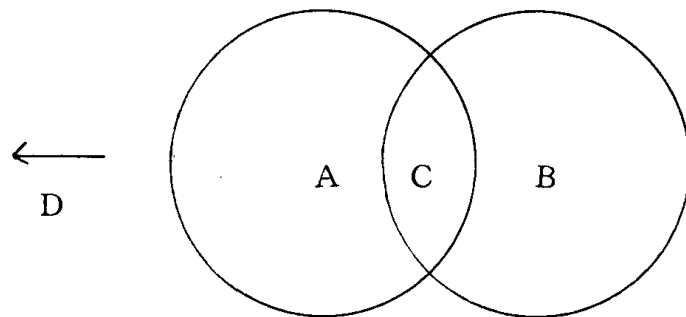
---

<sup>12</sup> 앞 글, pp. 36-37.

### Ⅲ. 韓國의 文化

文化의 意義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學者들 間に 論難되었지만 그 중 人類學의 선구자인 英國의 에드워드 타일러는 그의 著書「原始文化」에서 ‘文化란 知識, 信仰, 藝術, 法律, 道德, 慣習 그리고 社會의 한 成員으로서 人間에 의하여 얻어진 다른 能力이나 習慣들을 포함하는 複合總體’라고 하였다.

레스리 A. 화이트는 文化의 概念에서 文化의 體系에 대한 設定 說明에서 ‘文化의 모델은 技術的인, 社會學的인, 觀念的인, 요소의 構成으로 보고 體系란 部分과 部分의 關係가 部分의 全體에 대한 關係에 의하여 결정될 만큼 相互關連되어 있는 現象의 한 組織을 가르는 말이다’라고 하였다.<sup>13</sup> 이에 준한 文化의 範圍問題에 있어서는 White의 「The Concept of Culture」에서 文化의 所在地 圖表를 參考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sup>13</sup> 洪 哲洗 (1982), “韓國的 思惟와 傳統住居에 관한 研究,” 弘益大學校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未刊行), p. 8.

- A : 自國의 純粹文化權  
 B : 他國의 純粹文化權  
 C : 相互 混合 接觸文化 發生  
 D : 文化의 進化發展性向

위의 圖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나라의 文化란 自國의 純粹文化와 他國의 文化와의 相互作用에 의해 發生되어 進化發展되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文化란 他文化와의 混合, 接觸을 통해서 發生되어온 複合總體로서 계속 進化, 發展해가는 現象이라 할 수 있다.

본 章에서는 이와같은 文化의 개념을 참작하여 韓國의 전반文化와 各道의 文化에 대해 論하고자 한다.

#### A. 韓國의 文化的 背景

民族文化란 民族性, 곧 개성이 같은 風土的 環境과 역사적 발전과정, 공동의 집단생활을 영위하는 동안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生活과 사고방식에 대한 공동한 마음이 바탕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韓國의 文化 역시 民族性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나름의 個性을 지니고 있다.

民族性을 바탕으로 한 우리 民族文化가 형성될 수 있어온 제반 여건은 무수히 많았으나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몇가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 1. 風土的 影響

民族文化는 그 民族이 生活하는 地域의 自然環境의 제약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文化의 基本構造를 찾기 위한 國土의 自然地理에 대한 研究는 필수적이다.

첫째로, 우리가 사는 땅은 東半球의 동쪽에 자리잡고, 大陸에서 돌출한 半島와 여러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다.

韓半島는 兩面的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하나는 大陸적인 성질로 山이 많은 반면 湖沼와 平野가 적으므로 그 대륙성은 산악적 특성을 지닌다. 다음 특성은 바다, 가운데 돌출한 반도로서 해안선의 연장이 17,580 킬로에 달하는 만큼 海洋的이어서 섬나라같은 밝고 아담한 경치와 대륙적인 蕭條索漠의 풍치가 어울리어 그 海洋性은 매우 審美的이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위치는 위도상으로 온대에 처해 있으므로 대체로 온화하다 할 수 있으나 海流 관계로 같은 地方보다 低溫이다.

낮과 밤의 변화가 많고 여름과 겨울이 길며 더위와 추위의 차이가 심해서 이른바 大陸性 기후를 띠고 있으니 연 평균 기온은 남부가 十四度, 중부가 十度 내외 북부는 二度이다. 기후는 亞熱帶的, 溫帶的 寒帶的으로 교대로써 사철의 순환과 推移가 명료하므로 우리 기후의 성격은 온화하면서도 자극적인 데가 있다.

세째, 近海를 흐르는 寒暖의 海流는 수산자원을 풍부히 할 뿐 아니라 지질은 만주나 북중국과 흡사하여 풍부한 광물자원을 함유하고, 土壤도 식물의 養料를 제공하는 주요성분으로 보아 대개 中位이상 혹은 優良이라고 하며, 기후의 변화 地勢의 복잡은 물론 연 총량 五

백「미리」내지 一천五백「미리」로 만주의 약 二배 일본의 약二분의  
 一에 상당하는 강수량은 Flora (植物區)와 Fauna (動物區)의 풍  
 성을 가져 왔으니 신생동물학의 견지에서도 天惠의 好條件을 지녔음  
 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의 地勢와 기후를 살펴보면 우리의 自然環  
 境이 文化에 끼친 영향은 兩面性이 주도하는 것 같다. 즉 大陸的이  
 고 海洋的인 특성은 정치적 環境에 多隣的이면서 孤立的 성격은 주  
 었으며, 또한 위의 성격은 文化的 環境에다가 週邊的이면서 中心的 성  
 격과 더불어서 平和性과 激情性이라는 두가지 基本構素를 주었다.<sup>14</sup>

## 2. 他 文化圈의 影響

文化는 이동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複合함으로써 발전되는 만  
 큼 제 民族만의 순수한 固有文化는 사실상 存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民族文化의 지향이 여기에 집착하는 한 그 文化는 이내 衰  
 亡하고 말 運命에 봉착하는 것임은 새삼스러이 주의할 필요조차 없는 것  
 이다. 그러므로 文化 자체가 複合의性格을 지니는 이상 韓國文化도 하  
 나의 複合文化일 뿐 아니라 앞서 말한 半島性 때문에 상당히 다채  
 로운 複합을 거듭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文化들과의 접촉을 통해 지금의 한국 文化를 이  
 루어 온 것일까?

동양문화의 다수한 특성을 빚어낸 기초문화는 微細한 種差를 捨象

<sup>14</sup> 趙 芝薰 (1976), 「韓國文化史序說」(서울: 探求堂), pp. 14-21.



하고 나면 대개 北東亞文化圈, 中國文化圈, 印度文化圈의 三가지를 들 수 있다.

우리의 文化도 위에 언급할 三文化圈의 영향력 아래서 다소의 차이를 가지면서 형성되어 왔다.

#### 가. 北東亞文化圈

이 文化圈은 동양문명 最高의 原初的 기반을 형성한 一大文化圈인 동시에 한국의 고유문화권이다.

우리 文化와는 體質的으로 言語的으로 같은 계통이며, 무엇보다도 이 文化권은 샤머니즘 文化圈으로서 샤먼의 신비력에 대한 信仰특색과 先祖崇拜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신화면에서도 天孫族說話를 비롯하여 卵生說話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샤먼의 巫具인 거울, 북, 방울로써 先祖崇拜의 보물을 삼는 刀 崇拜, 血盟의 風習이 모두 공통함은 물론, 우리의 古先民이 칼을 숭상하고 弓矢의 발달이 교묘하며, 머리에 상투를 찡고, 구슬 패물을 차고, 긴 소매 넓은 바지 옷을 입고, 가축신을 신으며, 環刀를 차며, 활에 새털을 달고, 화살에 鳴鐘을 붙인 風俗은 모두가 大陸 特유의 形式으로 아세아 東北方의 古風임을 볼 때 우리 原始文化의 계통은 瞭然한 바 있다.<sup>15</sup>

#### 나. 中國 文化圈

이 文化圈은 印度文化와 함께 東洋文化의 二大源泉일 뿐 아니라 동양의 대표적 文化라 할 수 있으니, 韓國文化 형성에 있어서도 지대한 影響을 미쳤다.

---

<sup>15</sup> 앞 글, p.29.

그러나 중국의 上古의 文化 역시 시베리아문화권과 同源이다. 中國文化는 고대의 中亞文化가 天山南路 타글라마칸砂漠을 거쳐 崑崙山脈을 넘어 黃河流域을 향하여 진출하고 다시 東南北으로 파급된 것이다.

이 문화의 특질은 現實的, 主知的인 政治的 文化라 할 수 있다. 우리 文化에 끼친 영향은 기록과 文字의 시초인 漢字와 實踐的 倫理인 儒敎와 政治制度를 들 수 있다. 이 文化는 韓國 文化形成에 가장 일찍 영향을 주기 시작하여 가장 오랫동안 지도적 위치를 지녔던 문화이다.<sup>16</sup>

#### 다. 印度文化圈

이 文化圈은 古代에서 지금까지 中國文化와 함께 동아시아문화의 양대 원천으로서 동방의 主軸을 이룬 巨大한 文化圈이다.

印度文化의 특질은 主情的이요, 宗教的인데 있으니 思辨的 性格으로 世界에 자랑되는 二大民族으로서 希臘文化에 對比되는 점도 실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希臘文化는 哲學에서 예술로 최대 유산을 남겼지만 印度文化는 宗教로써 철학의 귀한 유산을 남긴 것이다.

印度文化圈의 우리문화에 준 두가지 공헌은 儒敎의 無限構想力의 神秘的 性格과 定住集團 農業의 기초요 경제적 생활혁명을 일으킨 벼농사의 技術이라 할 것이다.<sup>17</sup>

이상으로써 東洋文化를 이룩하는 三大基礎文化에 대한 간략한 고찰을 통하여 韓國文化의 유래를 대충 살펴 보았다.

---

<sup>16</sup> 앞 글, p. 31.

<sup>17</sup> 앞 글, pp. 32-33.

다시 말하면 韓國文化는 시베리아文化에서 요람기를 보내고, 漢文化圈에서 배우고, 印度文化圈에서 성숙한 셈이 된다.

그러므로 韓國文化의 시대적 類型을 파악해 보면 扶餘를 거쳐 고구려文化까지는 <시베리아문화+漢文化>이요, 남부의 三韓을 거쳐 신라文化까지는 <시베리아文化+印度文化>형이요, 백제文化는 <漢文化+印度文化>이요, 고구려文化는 불교文化型, 근세조선文化는 유교文化型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시베리아文化 곧 東北亞文化가 韓國文化의 根幹이며, 中國文化와 印度文化가 여기에 複合되어 한국문화를 이루었다는 점이다.<sup>18</sup>

### 3. 韓國文化의 歷史的 發展省略

韓半島에 있어서 人類 生存의 歷史는 約 一萬年前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紀元前 三千年前後에는 이미 新石器時代에 들었던 것과 紀元前 二千年頃에는 原始農業 共產社會붕괴 과정에 들었던 것과 文化的으로 이미 서방과 교섭이 깊었던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원시와 고대사회의 중심 領域은 만주를 中心으로 韓國의 대동강 流域에 까지 미치는 北方社會에 기반이 놓여 있었던 만큼 이미 紀元前 一千五百年頃에는 新石器時代를 완전히 벗어난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니 강대한 秦帝國뒤를 이은 漢나라가 勃興하면서 그 擴張政策에 지배되었고 (B.C 195 ~ 40 A.D) 그로 말미암아 紀元前 三世紀頃에는 新石器時代

---

<sup>18</sup> 앞 글, pp.33-35.

에서 비약하여 鐵器時代에 들어갔으며 그 지배에 의한 技術文化의 발달은 민족적 자각을 자극하여 마침내 그들의 部族同盟은 漢 民族세력을 몰아내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韓國文化의 歷史的 發展의 시초인 三國時代의 기반이 닦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韓國文化를 형성하는 主體인 韓國民族은 紀元前 二世紀頃에 그 윤곽이 잡히고, 紀元 七世紀頃에는 新羅의 三國統一(668)에 의하여 그 根幹이 섰으며, 紀元 十世紀에는 北方의 滿洲族과 韓國이 聯立한 國家 渤海가 망하므로(929) 그 遺民이 고려에 來投하여 여기에 韓國民族 형성은 끝나 Korean이 탄생되는 것이다.<sup>19</sup>

#### B. 各道の 地域的 特性和 文化

單一民族으로서,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한 生活樣式과 劃一的인 社會속에서 전체적인 공통 심리와 가치체계를 형성하여 왔다.

이처럼 古來로부터 형성되어 내려온 文化는 複合總體로써 綜合된 개념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地域을 둘러싸고 있는 自然環境이나 風土, 文化背景, 民俗, ... 등에 의해서 地域的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엿핏보아 地域的 個性의 상실은 地域사이에 있을 법한 위화감을 줄임으로써 나라 전체의 同質性을 높여 줄 것 같기도 하지만 國家나 地方의 더 차원 높은 발전은 오히려 地方文化의 個性이 그대로 간

---

<sup>19</sup> 앞 글, p. 36

직된 채로 統合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節에서 우리나라 各道의 文化의 特性을 알아봄으로써 各道의 個性을 파악코자 한다.

### 1. 各道의 風土

인간문화가 그 風土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은 18세기 헤르더(J. G. Herder) 같은 學者가 주장하였던 것으로, 그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大地의 암석과 식물을 포함한 風土의 차이가 주민의 고유한 品性의 차이를 만들었다.

단지 땅위에 있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공기와 물처럼 땅속에 있는 것과 태양과 무수한 별과 같은 하늘에 있는 것 까지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의 感覺은 風土的이어서’ 물이 부족하고 식물이 적은 地域의 주민들은 맛의 섬세한 선택없이 그것을 취하지만, 그것이 풍부한 地域의 主民들은 물맛까지도 분별하는 섬세한 味覺을 갖고 있고, 밝은 태양 빛의 風土에 사는 주민은 청각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또 ‘人間의 상상력도 風土的이어서’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과 해안지대에 사는 사람과의 관념이 다르고, 열대지방과 한대지방의 동화나 전설이 같지 않다는 것이다.<sup>20</sup>

이처럼 풍토란 人間文化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韓國은 東半球의 동쪽에 자리잡은 大陸에서 돌출한 半島이다. 半島

<sup>20</sup> 趙 要翰 (1983), 「藝術哲學」(서울: 經文社), pp.173-174.

란 大陸도 섬도 아니면서도 大陸성과 海洋성의 양면성을 지닌 곳이다. 韓半島는 山이 많고 큰 호수와 넓은 平野가 적은 데다가 해류관계로 기후가 낮과 밤의 변화가 많고 더위와 추위의 차이가 심한 대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17,580 km 라는 해안선의 길이 때문에 섬나라 같은 밝고 아담한 경치를 갖고 있어 그 氣質이 뛰어나 海洋的인 면이 강하다.<sup>21</sup>

이처럼 大陸的인 면과 해양적인 면의 양면성이 韓半島의 風土的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各地域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各道の 風土的 특성을 살펴 보자. 가. 京畿道'

京畿道는 전국의 중앙지대로 기후는 온화하면서 약간의 한대 기후지방이다. 지세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며 산악은 광주산맥이 축이 되어 얽혀 있다. 뒤로 東北의 감악산까지는 울퉁불퉁한 강원도 산천의 뻗은 형세가 있지만 앞으로 南北의 도봉산과 삼각산부터는 아른아른하고 수려한 것이 마치 그림과 같고 지질도 깨끗한 순백사질이다.

하천은 산맥과 깊은 관계가 있어, 동쪽 도계의 산악지대에서 뻗어나간 산맥과 산맥 사이에는 크고 작은 많은 계곡이 있어 높은 산악지대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자연히 이 계곡을 따라 흐르게 된다.

저 明媚한 송악산을 뒤에 두고 임진강이 둘러있는 개성은 고려왕조의 서울이요, 삼각산을 뒤에 두고 한강이 둘러있는 한성은 조선왕

---

<sup>21</sup> 앞 글, pp.176-177.

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國都이다.<sup>22</sup>

#### 나. 江原道

이 道는 北으로 함경도에 머리를 박고 南으로 경상도와 충청도에 발을 뻗었다. 西쪽으로는 京畿道와 연결하고 서북으로 황해도와 조금 닿았으며, 東쪽에는 큰 東海가 망망하다.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태백산맥은 웅장 힘준하게 내려오는데 오대산, 설악산, 한계산등 모든 중첩한 山들은 아직도 원시의 신비로운 자태가 남아 있다.

三神山의 하나인 内外金剛의 一만二천봉은 天然公園으로서 세계적 자랑거리로 동북에 나열되어 있다.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영서 16군은 모두 답답한 山뿐이나, 인제, 낭천, 홍천에서 내려오는 북한강과 원주에서 내려오는 남한강은 西쪽으로 황해도를 관통하며 굽이굽이 풍경만 좋을 뿐 아니라 漕運의 편이도 주었다. 東에 있는 영동 9읍은 영서와 정반대로 넓디넓은 東海가 있어 쾌활하기 짝이 없고, 태양의 혜택을 먼저 받으며, 연안의 해금강과 관동팔경은 天下에 유명하다.

그러나 土地는 척박하여 農利는 부족하고 다만 鐵原에 平野가 있어 약간의 農利가 있을 뿐이다.<sup>23</sup>

#### 다. 忠淸道

이 道는 北으로는 京畿道를 인접하고 南으로는 全羅道와 맞닿고 東

<sup>22</sup> 金 和鎭 (1973), 「韓國의 風土와 人物」 (서울: 을지문화사) p.29.

<sup>23</sup> 앞 글, pp.127-128.

으로 江原道에 머리를 두고 西로는 大海를 겨안은 地方이고 면적은 얼마 안되나 風土는 인접지를 따라서 다 다르다.

東에 있는 단양, 청풍, 제천은 속칭 內四郡으로 풍경이 明媚함과 水石의 疇曠한 것이 우리나라에만 유명할 뿐 아니라 온 世界를 들추어 보아도 天然的으로 이렇게 된 景致는 드문 곳이다.

西쪽으로 당진, 면천등 속칭 內浦十人郡은 어염의 흥리가 좋은 地方이요, 北으로 적산의 소사平野는 三國時代 고구려와 백제의 必爭之地로 전쟁이 끊일 새가 없었고, 朝鮮王朝 선조 丁酉年에 왜인이 재침하다가 이곳에서 一敗塗地하게 쫓기어가고 만 곳이다.

南으로 논산, 강경의 平野는 곡물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비단결 같은 금강은 '중양을 관통하여 구비구비 경치만 좋게할 뿐만아니라 漕運이 편리하므로 道民의 生活에 공헌이 크다.<sup>24</sup>

#### 라. 全羅道

이 道는 지리산의 천왕 영봉이 道를 군림하고, 중간으로 南北道를 가로막은 노령산맥이 큰 山이요 그 밖에는 나직나직하고 明媚한 山과 맑고 졸졸 흐르는 물이다.

김제, 만경의 일망무제하기가 바다 같은 平野는 中國 大陸과 유사하되 토지가 비옥하여 쌀의 생산이 많을 뿐 아니라 기후는 한난의 차가 심하지 않아 四時長靑의 植物이 많고 곳곳에 대나무가 무성하여 죽세공업이 발달하였고 이 道の 竹器는 世界的인 자랑거리이다.

석류, 귤, 유자, 비자등 열대 과실이 생산되는 외에도 南西로 휘도는

---

<sup>24</sup> 앞 글, pp.72-73.



大海 가운데 수 많은 섬에는 각종 어류가 回遊하므로 어업의 利도 말할 수 없이 많고 光陽에서 양식하는 해태는 東西洋에서 유명하다.

忠淸道와 통한 금강과 道를 뚫고 흐르는 섬진강은 漕運의 편리가 좋다.<sup>25</sup>

#### 마. 慶尙道

이 道는 우리나라 主山인 백두산의 큰 줄기 하나가 東으로 江原道를 거쳐서 다시 불끈 일어난 태백산이 온 道에 군림하고 죽령·새재·추풍령에 세 關防으로 忠淸道와 경계하고 가야의 큰 山이 中間에 놓여 있다.

智異의 영봉은 서로 全羅道와 연결하고 東·南으로 大海를 격하여 日本과 경계하고 울명줄명 내리흐르는 험한 장강 낙동강은 온 道를 휘돌아 漕運과 農利에 큰 도움을 준다.<sup>26</sup>

#### 바. 濟州道

四方을 둘러 보아도 보이는 것이 수평선 뿐인 濟州道는 東西쪽이 더 길쭉하게 달걀처럼 생겼고 한복판에는 높이가 1,950미터인 한라산이 솟아 있다.

한라산은 南쪽과 北쪽이 기울기가 완만한 것에 견주어 南쪽은 급하게 기울어져 있고 東쪽과 西쪽의 기울기는 北쪽과 비슷하다.

濟州道는 해안선이 몹시 단조롭고 바닷가 곳곳에 현무암의 벼랑이 있고 많은 동굴들은 거의 용암굴이다.

<sup>25</sup> 앞 글, pp.101-102.

<sup>26</sup> 앞 글, p.87.

바다 속에는 암초가 많아 좋은 港口가 별로 없으며,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어 물줄기가 솟아나는 곳이 아니면 물이 귀해 구할 수가 없는 섬이고 보니 논이 드물고 메마른 밭에서 잡곡을 주로 생산한다.

그러나 濟州道에는 自生植物이 우리나라의 어느 地方보다도 많이 分布되어 있다.<sup>27</sup>

흔히 사람들은 社會的인 動物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社會的인 삶이 다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땅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人間社會는 마침내 그 社會를 둘러싸고 있는 自然環境과 風土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점차로 文明이 발달하여 사람의 힘이 얼마쯤은 自然을 극복할 수 있게 된 오늘에 와서는 교통 수단의 발달과 文明의 교류로 地域끼리, 나라끼리, 그 차이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지만 옛날의 폐쇄된 사회에서는 사람도 오히려 自然의 한 부분으로 自然 속에서 自然에 依支하고 살았으므로 自然, 地理와 風土의 영향을 더 깊이 받았다.

따라서 歷史나 文化를 風土學에서 보면 自然 환경이 그것들의 특성을 形成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직도 하다. 같은 民族이고 같은 땅 안에 살면서도 山地, 平野, 海岸같은 삶의 처소가 다름에 따라 지방의 특색이 생겨나는 것은 그 때문이겠으니 말이다.

---

<sup>27</sup> 뿌리깊은 나무 (1983), 「한국의 발견」 (서울:브리테니커회사) pp. 20-32.

## 2. 各道의 文化背景

歴史的 측면에서 살펴 보자면 各道의 文化는 先史時代로부터 영향을 받아 왔겠으나 좀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 시기는 三國時代부터 일 것이다.

京畿道 사람은 고구려인이 되고 慶尙道 사람은 신라인이 되고, 全羅道 사람은 백제인이 되어 저 나름의 文化를 창조하고 발전시켰다. 이어서 統一新羅, 高麗, 朝鮮, 近世의 이르기까지 계속 영향을 받으며 변천되어 온 것이 지금의 各道이다.

-13도 제도가 실시된 1896年 8월 4일로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의 여덟道가 各道로 名名됐으며, 제주도는 1946년 8월 1일에 道로 승격됨-

本 項에서는 各 地域이 道로서 名名되기 이전 지금의 各道가 형성될 수 있었던 기초文化 배경을 살펴 보고자 한다.

### 가. 京畿道

京畿道는 東으로는 예맥文化, 西北으로는 낙랑-대방文化, 南으로는 마한 또는 백제文化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가옥구조, 민요가락, 농악의 연회양식, 民俗놀이, 무당의 형태 따위가 각 地域에 따라서 이질성을 나타내고 있다. 접경 江原道 地域에는 가옥구조, 농경방식, 민요, 농악, 연회양식, 民俗놀이 등이 江原道の 그것들과 가까우며, 개성 地域의 민요, 강화도의 가옥구조와 배치기 노래는 황해도의 그것들과 연결되며, 여주, 이천, 용인, 안성, 수원, 평택, 같은 곳의 民俗놀이, 民俗행사 말씨는 忠淸道の 그것들과 脈을 같이 하고 있다.

巫俗 信仰에 관련된 여러 요건은 한강 남쪽 지역은 忠淸道, 全羅道の 그것과 같고, 한강 北쪽지역의 것은 黃海道, 平安道の 그것과 다

름이 없다.

京畿道 땅은 고려조와 조선조를 통하여 천년 가까운 동안에 王都가 자리잡았던 地域이기도 하다.

따라서 文化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미미하게 생긴 것 말고는 다른 地域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文化 변동이나 지금의 것과는 다른 혁신적인 文化 변동은 보여 주고 있지 않다. 이는 아마도 이질文化를 융화하거나 통합하지 못하고 대치시켜 놓은 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sup>28</sup>

#### 나. 江原道

江原道는 中國 東北쪽, 만주지방에 살던 韓國人이 선조인 濊貊族이 내려와 이룬 文化로 기록에 춘천지방에 살던 부족을 貊, 강릉지방에 살던 부족을 濊라 일컬었다. 國史에서는 江原道の 濊와 貊을 영흥만의 東濊와 함께 묶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東濊란 만주 地方에 살던 濊-貊의 東쪽에 있는 濊貊이란 뜻이다.<sup>29</sup>

中國의 歷史 기록 「후한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예맥사람들은 성품은 몹시 어리석고 욕심이 적으며 산천을 소중히 여겼고 산천마다 경계를 짓고 이웃끼리 서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가끼리 혼인하지 않고 모든 일에 꺼리는 것이 많았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고, 보전병을 잘했으며 …이곳 사람들은 범을 신으로 모시고 사

<sup>28</sup> 뿌리 깊은나무 (1983), 「韓國의 발견」 第1卷 (서울:브리테니커회사), pp.79-80.

<sup>29</sup> 뿌리 깊은나무 (1983), 「韓國의 발견」 第2卷 (서울:브리테니커회사), p.38.

당을 지어서 제사를 지냈다.<sup>30</sup>

江原道 사람들은 아직도 예맥 시대의 몸가짐과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이 道는 山으로 둘러싸여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바깥 문물을 받아 들이는 일에 뒤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 다. 忠淸北道

韓民族은 大陸에서 韓半島로 두 차례에 걸쳐 이동했는데, 첫째로 이동한 사람들은 「남방 행렬」로서 半道の 南쪽에 정착하여 三韓의 부족국가를 세웠다가 그 중에서 진한과 변한이 합쳐 생긴 新羅를 통하여 남방文化를 이루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동한 사람들은 「북방 행렬」로서 北쪽에 자리잡고 부여, 옥저, 예 같은 부족국가를 이루었다가 뒤에 高句麗에 통합되어 북방 文化를 이루었다. 그리고 남쪽의 마한 땅에는 뒤에 고구려사람이 내려와서 백제를 세우니 南-北의 혼합文化가 이루어졌다.

이로부터 韓半道에는 高句麗, 新羅, 百濟가 저마다 영토를 확장했으니 북쪽의 고구려는 한강을 따라 내려오고 南쪽의 新羅와 百濟가 금강을 따라 올라와서 서로 마주쳤던 곳이 바로 지금의 忠淸北道 땅이다.

그래서 지금의 忠淸北道 땅은 高句麗, 新羅, 百濟의 국경지대가 되어, 한강이 흐르는 곳에는 고구려의 북방文化가 금강이 흐르는 곳에는 新羅와 百濟의 南方文化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

<sup>30</sup> 앞 글, p.69.

이렇게 忠淸北道는 두강이 흐를 뿐만 아니라 두 전통의 文化요소가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地理 배경과 歷史 배경은 오늘에 충주시를 中心으로 하는 중원 文化圈과 청주시를 中心으로 하는 서원 文化圈을 형성하게 했다.<sup>31</sup>

#### 라. 忠淸南道

忠淸南道는 칠백년에 걸친 百濟文化의 요람지였다. 百濟는 본디 북방에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 南쪽으로 내려와 한강유역에서 진 임금이 지배하던 마한의 일부를 이루었다가 점차로 발전하면서 언저리의 여러 부족을 합쳐 고이왕 27년에 중앙집권적 형태를 가진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새로 일어난 百濟가 마한의 지역을 아우르기 시작하자 忠淸南道는 百濟와 마한이 맞닿은 地域이 되었다. 그러다가 백제가 근초고왕 때에 마한을 완전히 통합하니 忠淸南道 地方은 百濟의 영토로 들어가 새로운 歷史가 시작되었다.<sup>32</sup>

百濟는 文化에 있어서, 中國의 한족이나 高句麗로부터 영향을 받아 東쪽의 新羅나 日本한테 영향을 미침으로서, 西北文化를 南東文化와 연결시키는 동아시아 文化 전체의 중요한 거점이 었다.

말하자면 백제는 외래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제 文化의 수준

<sup>31</sup> 뿌리깊은 나무 (1983), 「韓國의 발전」 第3卷 (서울:브리테니커회사), pp.69-71.

<sup>32</sup> 뿌리깊은 나무 (1983), 「韓國의 발전」 第4卷 (서울:브리테니커회사), p.35.

을 높이면서도 백제 고유의 文化를 키워 나갔던 것이다.<sup>33</sup>

#### 마. 全羅北道

全羅北道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한시대를 거쳐서, 百濟의 통일 이념인 「온」의 思想을 이 고장의 이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高麗 태조의 「훈요 십조」로 인해 「野地」가 되어 「野地」의 文化를 그들의 고유文化로 간직하고 있다.

「野地」란 산이 적고 野이 많은 地方을 말하기도 하지만 「조정」에 대해서 「백성」을 뜻하기도 한다. 이처럼 全羅北道는 들이 많은 農耕의 고장, 백성의 고장이다.

全羅北道の 文化가 그러한 백성의 마음을 바탕으로 한 文化일 때에 그것은 全羅北道라는 한 地域의 테두리를 벗어나 보편성을 갖게 된다.<sup>34</sup> 왜냐하면 이 野地의 文化는 밑에서 지배를 받는 백성의 고달픈 삶을 달래고 견디어 나가게 하기 위한 風流文化를 낳아 예술을 꽃피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全羅北道の 文化는 백제의 「온」의 精神을 이어 받고 「野地文化」로 인해 훌륭한 예술의 고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바. 全羅南道

全羅南道는 옛 마한의 땅으로서 그 당시 農耕文化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섬이 많고 또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배 文化가 이

<sup>33</sup> 앞 글, p.87.

<sup>34</sup> 뿌리깊은 나무 (1983), 「韓國의 발견」 (서울:브리테니커회사) p.73.

루어졌다. 儒敎의 교양을 쌓은 유배자들은 이곳에서 글과 그림과 글씨를 가르쳤다.

全羅南道の 농경文化와 유배文化는 두가지 文化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自然環境에서 비롯된 낙천적이고 이상주의 文化가 社會的 環境에 의해 반항적인 다른 文化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sup>35</sup> 즉 自然環境에서 비롯된 文化는 이 곳 사람들의 멋을 길러주었으나 社會的 環境에서 비롯된 文化는 恨을 낳았다고 생각한다.

#### 사. 慶尙北道

고대 이 地域은 무문토기인들에 의한 고인돌 文化를 시작으로 하여 新羅라고 불리는 한 國家社會로 통합되면서 地域文化를 이루게 되었다.

新羅文化의 자취로는 佛敎가 으뜸인데 그들은 新羅가 前世에 佛土였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경상북도에 또 한가지 특이한 文化 형태는 조선 후기에 뚜렷이 모습을 나타낸 반촌 文化의 모습인데, 양반은 읍내가 아닌 촌에 살면서 土地와 노비를 소유하고, 벼슬을 하지 못한 지 여러代가 지났어도 신분의 특권을 누리며, 벼슬보다는 道學이 우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추로지향」 곧 공맹학의 고향 이라고 주장하였다.<sup>36</sup>

<sup>35</sup> 뿌리깊은 나무 (1983), 「韓國의 발견」 第 6 卷 (서울: 브리태니커회사), pp. 35-79.

<sup>36</sup> 뿌리깊은 나무 (1983), 「韓國의 발견」 第 7 卷 (서울: 브리태니커회사), pp. 63-68.



오늘날에 와서는 반촌 文化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족보나 종친회나 하는 것을 통해서 핏줄이 유대를 지키려 하고, 과거의 文化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데서도 반촌 중심의 취향이 아직도 짙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 慶尙南道

경상남도의 선사 文化는 新石期 時代의 빗살무늬 토기 文化로 대표되며, 그 근본적 뿌리는 가야 文化에서 비롯된다.

가야 지방은 그 地理 조건과 自然 환경으로 文化의 본줄기가 농경 文化이고 거기에 해양 文化가 좀 곁들여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 文化의 성격은 진한 文化와 마한 文化 또는 신라 文化와 백제 文化의 중간·성격을 띤 文化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은 폐쇄적이고 내륙적인 데다가 해양적인 성격도 좀 띤 곳이라고 할 수 있다.<sup>37</sup>

가야는 일찍부터 新羅에 편입되었으므로 言語와 風俗과 信仰 같은 모든 분야에서 新羅의 성격을 더 지니고 성장하여 온 곳이라고 생각된다.

#### 차. 濟州道

제주도는 언제 원시 국가가 세워졌는지를 뚜렷이 밝히는 문헌이 없다. 아뭏든 제주도의 先主民은 어느 한 곳에서만 흘러들어온 單一民族으로 볼 수가 없을 것이며, 한반도로부터 들어와 주류를 이룬 한

---

<sup>37</sup> 뿌리깊은 나무 (1983), 「韓國의 발견」 第8卷 (서울: 브리टे니커회사), p.60.

족과 이곳 저곳에서 들어온 남방계 도서족들이 뒤섞인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中世 이전부터 제주도에는 中國 한나라 상인들과의 交易이 있었고, 또 제주도민이 한반도와 자주 交流했던 사실로 보아 고대 檀羅國 時代に 이미 물의 文化가 이 섬에 흘러든 것으로 보이지만, 물의 文化가 한꺼번에 흘러든 것은 삼별초의 난 때 일듯하다.

제주도에 半島의 文化를 옮겨 심은 사람들로 삼별초군말고는 유배인들을 들 수 있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 다섯 현인으로 일컬어지는 김정 송 인수, 김 상헌, 정 온, 송 시열과 추사 김정희였다.<sup>38</sup>

### 3. 各道의 民俗文化

「百里不同風」이란 말이 있듯이 民俗은 환경을 달리하는 속에서 양성, 형성, 성장된 生活 결과를 말한다. 그들이 속해 있는 自然的 環境과, 歷史的 環境, 社會的 環境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가운데 信仰과 지혜로 엮어 낸 生活 文化를 말한다.<sup>39</sup>

우리나라 各道의 生活文化인 民俗 또한 위의 세가지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다.

우리의 民俗은 주로 농민들로 이루어진 민중들 사이에 전승되온 風

<sup>38</sup> 뿌리깊은 나무 (1983), 「韓國의 발견」 第9卷 (서울 :브리테니커회사), pp.53-63.

<sup>39</sup> 임 동권 (1975), 「韓國의 民俗」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21.

짧이며 오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부락 공동체의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기층文化이다.

各道の 民俗은 우리나라 전체가 농업위주의 사회이고 그 저변엔 사머니즘 사상이 깔려 있으므로 유사한 점도 많이 있으나, 各道 고유의 民俗을 통해서는 그 道만의 특유한 文化 양식을 느낄 수가 있다.

#### 가. 京畿道

경기도는 다양한 文化 배경 탓으로 民俗 또한 동서남북이 저마다 다름을 엿볼 수 있다.

여주, 이천, 안성, 용인, 수원, 평택과 같은 곳에서는 정월 보름날에 「벼가리」, 「거북 놀이」, 칠월 백중날이나 팔월 추석날에는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것은 액을 막는 놀이라 한다.

연천, 가평에서는 정월 보름날 「차전놀이」를 하며, 개성과 그 인근지역에서는 「관동 놀이」와, 「망석중 놀이」를 사월 초파일날 행한다.

경기도 전체의 민속 놀이로는 반직업적 예인 집단원에 의해서 연희되는 「산대 놀이」와 「사당패 놀이」가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文化 유산으로 「양주 별산대 놀이」를 꼽을 수 있다.<sup>40</sup>

#### 나. 江原道

강원도는 크고 작은 산맥이 얽혀 있는 고장이므로 生活 文化도 山과 연관되는 것이 많다.

「산맥이기」행사가 그렇고 심메마니들의 굳은 법도가 그렇다.

---

<sup>40</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1卷, pp.68-85.

재미있는 풍속으로는 이 道에는 설날이 지나고 대보름이 오기까지 놀아야 하는 날이 많은 데 ‘새해를 맞는 첫 쥐날에는 쥐가 모든 곡식을 축낸다 하여 놀고, 첫 소날에는 어떤 연장이거나 가지고 일을 하면 소가 병이 난다는 전설이 있어 놀고…’ 여기에는 정초부터 대보름까지는 한해의 여러 일을 설계하며 폭 쉬라는 뜻이 담겨 있는 듯 하다.

음력 7월 15일은 농사와 관련된 「백종일」행사가 있으며, 그 이튿날인 16일에는 중국의 시인인 소 동파가 적벽강에서 불렀다는 「적벽부」의 詩 정신을 기리는 뜻에서 「기망 놀이」라는 놀이를 한다.<sup>41</sup>

#### 다. 忠淸道

충청도는 다른 지방에 비해 보수적이므로 해서, 아직까지도 옛날 수 있는 풍속이 많이 남아 있다.

「동국 세시기」에 보면 정월조에 「十二支日」의 풍속이 있어, 有毛日과 無毛日을 가려吉凶을 판단했으며, 14일 아침에 「더위 팔기」 대보름날 「부름까기」와 망월 「다리 밟기」, 「돌패 싸움」의 풍속이 남아 있다. 4월 초파일에는 「범주사 탑돌이」가 재현되며, 팔월 보름 한가위에는 「거북 놀이」와 「소놀이」가 행해 졌으며 초복날에는 「복다래미」라는 제사를 지낸다.<sup>42</sup>

忠淸道の 民俗은 南·北의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sup>41</sup> 뿌리깊은 나무 (1983)第2卷, pp.68-99.

<sup>42</sup> 뿌리깊은 나무 (1983)第3卷, pp.66-106.

#### 라. 全羅北道

전라북도는 오랜 역사를 통해 명창과 명인이 많이 나온 국악의 고장이라 할 수 있어 民俗도 이에 연관된 것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농악을 들 수 있는데, 전라북도의 농악은 좌도굿과 우도굿으로 나뉘며, 「마당밧이」라는 집안굿,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는 「쌍룡 놀이」, 서해 위도의 「띠뱃 놀이」, 익산의 「기세배 놀이」, 전주의 「기점 놀이」 등이 모두 농악을 위주한 놀이이다.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전주의 정월 보름날에 하는 「남천 석전」이라든가 「기와밧기」도 이 道の 대표적 民俗이라 할 수 있다.<sup>43</sup>

#### 마. 全羅南道

전라남도는 풍토적으로 축복받은 땅으로, 豐農과 豐魚를 비는 민속과 예술을 많이 남겼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진도 들노래」와 「함평 들노래」 진도 지방과 해남 지방의 「강강술래」와 「줄다리기」와 「고 싸움놀이」 등이 있다. 이 모두는 소리와 춤이 결합되어, 이 道가 풍류의 고장임을 나타내고 있다.<sup>44</sup>

#### 바. 魔尙北道

경상북도의 民俗은 농사일과 밀착되어 있으며 自然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어 더욱 소중한 듯하다.

어디든지 있었던 「줄다리기」, 「안동 동채싸움」, 「의성 가마싸움」

<sup>43</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 5 卷, pp. 109-117.

<sup>44</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 6 卷, pp. 104-111.

「군위 박씨 놀이」들이 모두 그런 것들이다.

모의 재판인 「원놀음」과 안동군 일대의 「늦다리」, 영덕군 해안 마을의 「월위리청청」이 특히 이름난 것들이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길쌈의 고장이라 길쌈노래며, 노동요가 풍성한 고장이기도 하다.<sup>45</sup>

#### 사. 慶尙南道

경상남도 역시 농업이 성한 곳이고 어촌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농사짓기와 고기잡이를 함께 하고 있어 한해의 행사에는 주로 농사와 관계있는 民俗이 많다.

경상남도의 대표할 만한 民俗으로는 「오광대」와 「들놀음」을 들 수 있는데, 「통영 오광대」, 「고성 오광대」, 「진주 농악 12차」, 「진주 짐무가」, 「동래 들놀음」, 「총무 승전무」, 「영산 쇠머리 대기」, 「영산 줄다리기」, 「수영 들놀음」, 「부산 대금 산조」, 「좌수영 어방 놀이」, 「밀양 백중 놀이」, 「가산 오광대」, 「고성의 농요」, 「진주의 한량무」, 「창원의 문창제 놀이」, 「수영의 농청놀이」, 「동래의 학춤」과 「지신밟기」, 「부산의 아미 농악」등이 있다.<sup>46</sup>

#### 자. 濟州道

제주도는 특이한 지형과 기후로 인한 災害로 말미암아 民俗도 즐기고 노는 것 보다는 神이나 祖上에게 비는 제사형식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제주도 사람들이 祖上을 생각하는 마음은 先祖들의 무덤을 유달리

<sup>46</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8卷, pp.85-93.

돌보는 風習에 잘 나타나 있다.

이 道에서는 대보름날에도 육지처럼 즐기기 보다는 그해의 방사 곧 한해 동안에 닥칠 나쁜 운을 막기 위한 갖가지 일을 하는데 「도채비 방쉬」, 「연 방쉬」, 「차사 액막이」등이 그것이며, 날에 따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정해져 있어 그 틀에 매여져 살아 왔다. 이런 관습은 지금도 관혼상제의 날을 정하는데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sup>47</sup>

#### 4. 各道의 펠스넬러티

各 개인마다 나뉠대로의 個性을 지니고 있듯이 한 나라의 국민도 제각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성격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 성격과 함께 존재하고 있으므로 겉으로는 쉽게 파악할 수 없고 역사·문화·전통의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격에 대해 ‘ 융 (C.G. Jung )은 인간 정신에는 어느 집단에서나 의식적으로 각종 교육을 통해 전달되는 그 집단 특유의 행동양식이나 사고 방식이 있음을 말하고, 이를 집단의식 ( Collective - Consciousness ) 이라 하였다.

즉 어느 집단의 고유의 전통 정신, 특이한 文化는 그 집단 의식을 구성하며, 보편성을 띠므로 그 집단 성원은 모두 이런 집단의식으로 대변되는 집단 정신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다.<sup>48</sup>

<sup>47</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9卷, pp.221-231.

<sup>48</sup>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한국인의 성격」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8-9.

우리는 앞에서 各道の 風土, 歷史, 文化 등에 대해서 살펴 보았으므로,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各 道の 펄스넬리티를 파악하고자 한다.

#### 가. 京畿道

경기도는 여러 이질 文化가 융화 통합하지 못한 채 형성되어 왔으므로 各 地方 마다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속전에 따르면 「개성 사람은 오줌도 맛보고 산다」, 「수원 사람 앉은 자리에는 삼년 풀이 안 난다」, 「여주 이천 사람은 참새에 굴레 씌운다」, 「늑살 좋은 강화년(연)」, 「안성마춤」 등이 그것이며, “四字評說에 경기도 전체의 기질을 가르쳐 鏡中美人이라 했다.”<sup>49</sup> 그러나 표독하다든가 급하고 사납다든가 잔인, 음흉, 호전, 투쟁같은 낱말로 평한 地方은 없는 것으로 보아 경기도 사람은 비공격적이고, 비진취적이고, 비격동적 意志를 지니고, 다만 일상 生活을 평온하게 꾸려 나가려는 기질의 민중이라고 하겠다.

#### 나. 江原道

강원도는 태백산을 중심으로 하여 산과 물이 좋은 自然 조건에 따라 佛敎 文化와 은둔 生活의 고장으로 시인과 묵객의 발걸음이 잦았으며, 골짜기마다 自然의 목탁소리에 사람의 간사한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고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自然 조건은 강원도 사람들에서 四字評說에서 언급된 「岩下古佛」<sup>51</sup>이니, 「감자 바위」니 하는 별명을 붙

<sup>49</sup> 金 和鎭(1973), p. 23

<sup>50</sup> 뿌리깊은 나무(1983)第1卷, pp. 75-76.

<sup>51</sup> 金 和鎭(1973), p. 24.



여 주었다. 이것은 불교의 영향으로 세상일에 초연한 性品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 가는 데에 가장 알맞는 것으로 벼슬길에 나서는 것을 피하는 은둔자의 人生觀이 잘 나타나 있다.<sup>52</sup>

#### 다. 忠淸北道

충청도의 「忠」字와 「淸」字는 충주와 청주의 첫 字를 따서 지은 것이지만, 거스르지 않고 탁하지 않은 이 고장의 산천과 양반됨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로부터 충청도는 「양반의 고장」이라 했다. 이곳 양반들이 관직과 문벌, 예절, 형식, 윤리, 체면, 혈통, 족보를 중시하였던 반면 平民들은 이들에게 복종하는 데에 익숙했다.

오늘날에도 '충청북도 사람의 生活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言語와 信仰, 나아가 모든 文化가치 속에 옛날의 충청도 양반의 보수성과 평민의 순종의 미덕이 조화를 이룬 덕택인지는 몰라도 「인심 좋은 충청도 사람」으로 고정되어 비록 성격이 무덤덤하고 그 기질이 접액질이어도 모두 온후하고 명랑하며 안일하고 평온한 地方性을 나타내고 있다.<sup>53</sup>

#### 라. 忠淸南道

충청남도 역시 충청북도와 마찬가지로 「양반의 고장」임에는 틀림 없으나 충청북도만큼 보수성이 강하지 않다. 그것은 이곳이 옛 百濟의 「온」의 精神을 이어 받아 화합과 중용의 性品을 지니고 있기

<sup>52</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2卷, pp. 43-82.

<sup>53</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3卷, pp. 20-83.

때문이 아닌가 한다. 말하자면 걸으로 티 내지 않고 뿔내고 나서지 않으면서 제 할 일은 다하는 것 은근함 속에서 조화의 멋을 찾을 줄 아는 것이 이곳 사람들의 性品이라 하겠다.

충청도 전체를 가르쳐 四字評 에서는 「清風明月」<sup>54</sup> 이라. 하였는데 이 말은 「비 현실적」이고 「완만하다」는 두가지 뜻을 지닌다. 한마디로 말해 충청도 사람들은 변화하는 시세 風俗에 무던 편이고 계산이나 잇속에도 밝지 못하며 삶을 위한 개척정신이 별달리 연구되지 않지만, 그저 自然 여건이 순조로운 만큼 문물도 알맞고 그래서 극단적이거나 과격한 것을 꺼리고 느리지만 화해와 조화로운 삶을 쫓는 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sup>55</sup>

#### 마. 全羅北道

전라북도 역시 충청남도과 마찬가지로 百濟의 「온」의 정신을 이어 받았음을 전주의 옛 이름인 완산에서 엿볼 수 있다. 「완」이나 「전」이나 모두 그 뜻은 「온」이다. 「온」은 완전하여 흠이 없고 원만하여 모자람이 없고, 순수하여 티가 없고 모든 것이 어울린다는 뜻으로 이 지방 사람들에게 포용력과 낙천적이며 평화롭고 인정이 다사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 태조의 「훈요 십조」의 편견 속에서 청자빛의 고요롭고 깊은 체념의 정서를 또한 간직해 왔다.<sup>56</sup>

<sup>54</sup> 金 和鎭 (1973), p. 24.

<sup>55</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 4 卷, pp. 62-64.

<sup>56</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 5 卷, pp. 45-55.

### 바. 全羅南道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비옥한 地域이며 날씨 또한 온후하여 비교적 生活이 넉넉하고 안정됐다.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해서 소외와 편견수탈을 당해야 하는 歷史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엔 상반된 두가지 性質을 지녀 왔다. 하나는 훌륭한 지형조건으로 인해 개방적이고 인정이 후하며 낙천적이고, 풍류와 이상을 간직하게 됐으며, 수탈의 歷史로 인해서는 저항과 恨의 체념, 숙명관을 지니게 되었다.

전라도 전체를 가르켜 「四字評說」에 「風前細柳」<sup>57</sup>라 하였다. 이는 작고 가냘픈 性質로 의지와 주의 주장이 부족함을 말한 것이나, 수탈 속에서 용케도 삶을 이어오고 스스로의 文化를 지켜온 힘과 슬기가 바람에 날리는 실버들의 질긴 속성을 닮았음을 또한 말해 주는 것이다.<sup>58</sup>

### 사. 慶尙北道

경상북도는 신라 천년의 歷史와 傳統의 본고장이며, 높고 험한 山이 많은 반면에 해안선은 東部面뿐이다. 따라서 개척적이기보다 확실히 保守的이다.

경상북도 방언은 대체로 억세고 무뚝뚝하다. 방언이란 결국 그 지방 사람들의 성격과 같은 것이라 볼 때 이 평은 타당하다고 해야 할 듯하다. 이러한 방언에서도 엿볼 수 있는 성격은 매우 風土的이

<sup>57</sup> 金 和鎭 (1973), p. 25.

<sup>58</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 6 卷, pp. 50-51.

다. 이 道는 日本과 가까이 접해 있어 수탈의 불안과 긴장 속에서 맞서기 위한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기백, 거센듯한 말과 동작을 간직해 온 것이다.<sup>59</sup>

#### 자. 慶尙南道

경상남도는 지형적 조화로 인해 내륙에서는 풍요롭고 자주스런 생활양식을 이룰 수가 있고, 항구가 많은 해안 지역은 外國과의 자진 접촉으로 인해서 내륙에 비해 개방적이다. 이처럼 내륙의 自然環境은 道民들에게 독립성, 자주성, 폐쇄성을 해안의 自然環境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교섭적인 기질을 낳았다.

경상도 전체를 가르켜 「四字評說」에서 「雪中孤松」 또는 「泰山高嶽」<sup>60</sup>이라 한 것은 이 地方사람은 목소리가 몇곳고 고집이 세며 세 사람만 모여 한담을 하여도 온 동리가 떠들썩하다. 사람의 성질 雍容한 것이 부족하여 우락부락하고 곧은 목이 지나치게 솟아 남에게 온순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sup>61</sup>

#### 차. 濟州道

제주도 사람의 기질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은 그 곳의 自然環境과 가족 관계에서다. 척박한 토질, 심한 기후 변화 더불어 왜적과 관리의 수탈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강한 生活力과 合理的인 生活態度를 지니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어려운 環境에서 비롯된 가족

<sup>59</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7卷, pp.63-89.

<sup>60</sup> 金 和鎭 (1973), p.26.

<sup>61</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8卷, pp.69-73.

제도는 철저한 분가주의이다. 이 분가주의는 강한 독립, 생활의지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절약정신, 「차돌로 뚫으면 구멍이 난다」는 이곳 속담에서와 같이 끈질긴 정신의 脈을 낳았다.<sup>62</sup>

### C. 各道の 巫俗文化와 生活

앞서 우리는 巫俗思想에 대해 살펴 보았다. 巫俗은 佛敎, 道敎, 儒敎祭禮 등 한국의 여러가지 宗敎現象中에서 가장 歷史가 오랜 土着 宗敎의 하나이다. 그것은 오랜기간 미신으로 억압돼 왔지만 아직도 民間信仰으로서 뿌리가 깊고, 巫俗자체뿐만 아니라 韓國人의 모든 宗敎的 思考의 基盤을 이루며, 生活 주변 속에 밀착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韓國의 巫俗은 生活환경 속에서 可祭로서 巫醫로서 占卜로서 國民結束力, 藝術産出性, 歌舞娛樂 등의 기능<sup>63</sup>을 수행해 왔다.

그러면 이러한 한국의 巫俗이 농경생활을 위주로 하는 各道の 주민生活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자

#### 가. 京畿道

경기도의 무당型은 神病으로부터 발단되는 降神體驗을 통해서 된 무당과, 「菩薩」, 「七星할멈」, 「法師」등의 하위 무당인 「선무당」이 있다. 이들은 靈力으로 占을 치고 豫言하는 것이 主機이다.<sup>64</sup>

앞서도 언급했듯이 경기도는 여러 이질 文化가 내려오는 곳이다. 따라서 巫俗과 관련된 生活도, 한강 남쪽 지역에서는 충청도, 전라도

<sup>62</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 9 卷, pp.178-187.

<sup>63</sup> 시사영어사 (1982), 「韓國의 民俗文化」 (서울: 시사영어사), p. 73

<sup>64</sup> 金 仁會 (1982), 「韓國巫俗의 綜合的 考察」 (서울: 고려대학교민속문화연구소), p. 35.

의 그것과 같고, 한강 북쪽 지역의 것은 황해도, 평안도의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 나. 江原道

강원도 사람들의 生活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토속 宗教의 색채이다. 범의 해가 무서워 범을 만들어 모셨던 예맥 사람들의 후예답게 강원도 사람들은 산천과 바다를 두려워 해서 바닷가에서는 서낭굿을 하고 산간 지방에서는 서낭 제사를 올렸는데 아직도 서민의 종교의식으로 남아 있다.<sup>65</sup>

강원도 산 에는 아직도 「산뻘이기」라는 종교행사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姓氏의 門中끼리 산당에 모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또한 이 곳 사람들의 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심메마니들의 굶은 법도」이다. 이들은 산에 들어가기 전에 부정한 것을 물리치고 몸을 정갈히 하며 산신각의 산신령에게 치성을 드린다.

이 곳의 아낙들은 칠팔월경에 蓼을 찌는데, 이때는 농악과 잔치를 벌이는 蓼굿을 한다. 그리고 동해안 가에서는 장대 끝에 오리 세 마리가 얹혀 있는 「진또베기」라고 부르는 수살목을 세워 놓고 한 해에 세 번 마을제사를 지내며 따로 三해에 한번씩 굶을 하는데 이것은 물과 불과 바람의 화를 쫓기 위한 행사이다.<sup>66</sup> 이렇듯 강원도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山과 연관 지어있어, 山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山사람임을 알 수 있다.

<sup>65</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2卷, p.69.

<sup>66</sup> 앞 글, pp.69-82.

#### 다. 忠淸北道

충청도의 무당 유형은 法師류의 선무당으로서 神病을 앓는 강신체  
험을 통해 神의 靈力을 얻었으나 巫俗의 정통한 곳을 할 수 없어  
서 祭儀를 讀經式으로 하는 「앉은곳」무당이다.<sup>67</sup>

충청북도에는 민간신앙으로 산악, 바위, 수목 같은 것을 숭배하는 애  
니미즘의 원시 형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마을 사  
람들의 복을 빌고 액을 막고 풍년을 비는 동제의 경우를 보면 한강이 흐  
르는 곳에는 「서낭제」가 분포되어 있고, 금강이 흐르는 곳에는 「탄  
신제」가 분포되어 있다. 또한 이 곳에는 토속신이 많이 있는데, 집  
안에는 가신들-터주 대감이 마당에, 성주가 마루에, 삼신 할머니와 제  
석신이 안방에, 불의 神인 조왕이 부엌에 용왕이 우물에-이 집안  
을 보호한다. 시월 상달이 되면 주부들은 무당을 불러 이 여러 가  
신들에게 집안의 태평함과 무사함을 비는 안택굿을 한다.<sup>68</sup>

이곳의 무당굿은 매우 향토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 북과 징만 두  
드리며 갓 쓰고 두르마기 입고 접꺾게 행하는 「앉은곳」은 충청북  
도 사람의 기질을 드러내 주는 이곳 文化의 구조로써도 해석할 수  
있다.

#### 라. 忠淸南道

충청남도의 민간 신앙의 경우에 얼핏 생각하면 옛 관습이 많이 이  
어지고 있을 듯하나 개인 신앙이나 가정 신앙은 거의 그 기능을 잃

<sup>67</sup> 金 仁會 (1982), p.36.

<sup>68</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3卷, pp.66-77.

어 가고 있다. 다만 집단신앙의 의식은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에 전승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집단신앙의 종류로써 「탑신제」, 「거리제」는 神이 마을을 보호하고 모든 잡신의 침범을 막기 위한 것이고, 「산신제」, 「장승제」, 「동화제」등은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번성하며 부락민이 무사하고 안녕하기를 비는 목적이며, 서해안 일대의 「장군제」, 「풍어제」는 장군신이나 용왕신을 제사하는 것으로 豊魚, 고기잡이 생활의 안전 그리고 마을의 편안함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sup>69</sup>

이처럼 충청남도에 많이 남은 집단 신앙은 그 지역 주민들의 공동 목적과 공동 이익을 위해 마을의 제의에 다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루어 지는데, 이는 백제의 후손답게 「화해」와 「중용」을 중히 여기는 「온」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마. 全羅北道

전라도의 무당 胥은 단골胥으로써 血統을 따라 代代로 司祭權이 계승되어 人爲的으로 成巫한 世襲巫로서 巫俗上의 制度的 組織性을 갖춘 巫이다.<sup>70</sup>

전통사회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라북도만큼 유교 사상에 젖어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곳도 드물 것이다. 따라서 갖가지 속신 따위도 엄한 법도의 처지에서 남정네 모르게 아낙네가 숨어서 하는 행사였다. 이 지방 아낙네들의 속신 중에 「일곱」이란 숫자가 깊이 뿌리박게

<sup>69</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4卷, pp.66-88.

<sup>70</sup> 金 仁會 (1982), p.36.



되었는데, 이는 당골의 「칠성님」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당골들은 혼인날, 이사날, 잔칫날을 예시해 주고, 병약한 아이의 대모 노릇도 하며, 부녀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

음력 정월 초하룻날에는 「성주상」을 방앗목에 놓아 집안의 재앙을 막고 윤이 대통하기를 빌며, 음력 동짓날에는 괘죽을 문지방에 바르거나 담벼락에 뿌려 귀신을 쫓는다.

또한 이들은 삼신단지와 성주단지를 집안에 놓아 건강과 운수를 위해 치성을 드렸으며, 서낭당과 당산을 마을에 두어 온 마을의 재앙을 막고 농사가 잘 되기를 비는 동신 신앙을 간직했다.<sup>71</sup>

#### 바. 全羅南道

전라남도는, 민간 신앙에 따른 여러 의식이 많이 전승되어 오는 고장이다.

집안이 잘 되기를 비는 「집굿」, 정초에 집안이 태평하기를 비는 「도신굿」, 죽은 이를 극락으로 이끌어 가는 「섞임굿」, 새집 짓고 터 올리는 「성주굿」, 그 밖에 「지왕맞이」, 「근은손」이 있으며, 마을 굿으로는 농악이 풍성하게 연주되는 「당산굿」, 두레를 차릴 때에 하는 「대동굿」, 다리 놓을 때에 하는 「다리굿」, 당을 새로 지을 때 하는 「당굿」, 장승을 세울 때 하는 「장승굿」, 뱃사람들이 바다의 화평을 비는 「용왕제」, 바다의 풍성을 비는 「갯제」등, 모든 굿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소리와 춤과 놀이가 함께 어

<sup>71</sup> 뿌리깊은 나무(1983)第5卷, pp.90-100.

올어 짐으로써 많은 민속을 또한 낳았다.<sup>72</sup>

#### 사. 慶尙北道

경상도의 무당 胥은 전라도의 그것과 유사한데 세습무로서 司祭權이 혈통을 따라 代代로 세습되는 제도화된 巫로 역시 神의 靈力이 없어 祭儀의 一方的인 司祭의 기능만 갖고 있다.<sup>73</sup> 이와 같은 무속 성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굿의 행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듯 하다.

정월 초순이면 마을마다 풍물을 치며 걸립을 해서 서낭을 모시는 굿을 했으며, 동해안 일대의 무당굿인 별신굿은 제법 규모가 커서 여러날 계속되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연극의 일종인 거리굿으로 인생살이의 풍자와 웃음을 낳는다.<sup>74</sup>

#### 자. 慶尙南道

경상남도의 무당은 神의 靈力은 없지만, 계승된 법통에 따라서 기교스런 노래와 춤과 절차로써 굿을 진행하므로 그 나름대로 권위를 가진다. 이 지역에는 세습무 말고 명도(또는 명두), 공징이(또는 공창), 보살같은 무당도 있다. 이들은 「집굿」에서 「재수굿」, 「우환굿」, 「오구굿」, 「진오구굿」, 「산오구굿」들을 하고 부락제에서는 「별신굿」을 주로 한다.<sup>75</sup>

<sup>72</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 6 卷, pp.104-111.

<sup>73</sup> 金 仁會 (1982), p. 36.

<sup>74</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 7 卷, p. 76.

<sup>75</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 8 卷, pp.91-92.

### 차. 濟州道

제주도의 무당 型은 심방型으로써 단골型과 같이 巫의 司祭權이 혈통을 따라 대대로 계승되는 세습무로서 무속상의 제도화된 한 면을 보이면서 靈力을 重視하여 神에 대한 神觀이 확립되어 있는 巫이다.<sup>76</sup>

제주도에는 놀랍게도 본풀이가 본디 모습 그대로 전해져 온다. 크게 「일반신 본풀이」, 「당신 본풀이」, 「조상신 본풀이」로 나눌 수 있다. 본풀이는 神들의 파란 많은 한평생을 그린 것으로, 이것은 바로 이를 모시는 제주 사람의 삶이기도 하다.

집안을 위한 神으로는 「문전」, 「조왕」, 「안칠성」, 「뱃칠성」, 「주목지신」등이 있는데 이 神들에게 본풀이를 하여 집안의 수호와 평안을 기원한다.

가문이나 씨족의 수호신으로 「조상」이란 신이 있다. 정월이 되면 날을 정해 「맹감」 또는 「철갈이」라는 곳을 바쳐 집안의 안녕을 빈다.

마을의 부락제로는 남자들이 주관하는 「포제」와 여자들이 주관하는 「당굿」이 있다. 당굿은 당에서 행해지는데 마을의 수호神을 모시는 「본향당」, 아이들을 키워 주고 피부병을 고쳐 주는 「이렛당」, 뱀신을 모신 「여드레당」등이 있다.<sup>77</sup>

제주도의 민간신앙중 재미있는 점은 조상 숭배에 있어서나 가정신앙, 부락제 등이 남자의 것과 여자의 것이 따로 뚜렷이 구분되어 행해진다는 것이다.

<sup>76</sup> 金 仁會 (1982), p. 38.

<sup>77</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 9 卷, pp. 249-256.

## Ⅳ. 韓國의 象徴

한 國家의 象徴이란 各 國民의 意識속에 內在되어 있으면, 그것은 집단, 또는 한 시대와 단절없는 총합을 이루므로써 비로소 충분한 意義를 갖는다.

분석 哲學者 중의 한 사람인 Ernst Cassirer(1874 ~ 1945)는 인간정신의 인간적인 활용이 모두 상징적인 활동이요, 인간정신의 소산은 모두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sup>78</sup> 그렇다면 한 國家의 神話, 宗教, 言語, 歷史, 科學등도 象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象徴들은 한 국가 안에서 국민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하며 사회질서의 유지와, 同類의식을 조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國旗란 형견이나 종이에 그려진 인위적인 물건에 지나지 않지만 한 國家를 象徴하는 함축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 이것을 中心하여 國民은 조국에 대해, 民族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며, 때에 따라선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징이란 그 역할면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 韓國의 象徴을 찾고 그것에 內在되어 있는 의미와 질서를 발견하는 일은 우리의 얼과 맥을 이어감과 동시에 표출하는 일인 것이다.

본 章에서는 Ⅱ, Ⅲ장에서 다룬 한국의 사상과 文化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韓國의 象徴的 요소와 各道의 象徴的 요소를 세분하여 여

---

<sup>78</sup> 崔 明官 (1977), 「意味의 哲學」(서울: 現代思想社), p. 29.

러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어떠한 측면에서도 우리 韓國을 대표할 수 있는 象徴的 요소들이 內在해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 A. 韓國의 象徴的 要素

### 1. 檀君神話

우리 韓國을 象徴하는 대표 神話는 단군신화로써 이것은 우리나라와 민족의 역사적 전개발전의 좌표위에서 그 원점을 확보하고 있다.

모든 神話가 그러하듯이 단군신화 역시 개인의 창작이 아니고 한 민족의 집단적 소산이며 또한 무의식적인 魂의 구현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神話를 통해서 한민족의 자연관과 생활관념등을 엿볼 수 있다.

이 神話에 의하면 우리民族은 고래로부터 농업中心의 사회였으며 「弘益人間」, 「在世理化」, 「主善惡」등의 통치이념과 「能産的宇宙」의 세계상과 「全人」실현의 인간관을 엿볼 수 있다.<sup>79</sup> 이것들은 현재에 있어서도 우리 한민족의 이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단군신화를 우리 韓國의 民族思想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象徴的 神話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2. 東 學

고유한 言語가 있고 독특한 生活風習이 있는 民族에게 독특한 民

---

<sup>79</sup> 宇石(1982), 「韓國思想의 深層研究」(서울: 도서출판宇石), pp.10-75.

族性이 生成되며, 이러한 民足性이 창조한 사상이나 종교는 그 민족 생리의 깊은 곳에 뿌리를 박고 있다.

이러한 韓國의 宗教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은 東學이라 생각된다. 東學은 儒·佛·仙 3教의 長點을 取하고 在來의 民間信仰을 많이 섭취하여 하나의 새로운 宗教的 理念과 形能를 갖춘 것이다.

이것은 人及天으로 집약되는 平等思想을 지니며 기성 宗教와 달리 民族的 色彩가 짙은 民衆的 宗教였다.<sup>80</sup>

우리의 전통종교사상은 언제나 民衆의 생활속에서 그들의 哀歡을 달래주는 生活의 伴侶者로 一貫해 왔으며 民族心性의 저변에 뿌리를 박고 줄기차게 전승되어 우리의 정신적 象徴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

### 3. 선비 道

서양이 기사도를 만들었고 일본이 무사도를 만들어 냈다면 우리는 선비도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正機能의 선비도로는 첫째, 「輕利崇義」 둘째로 「先公後私」, 세째로 「參與精神」, 네번째로 「修養精神」, 다섯째로 「사내 大丈夫 精神」을 강조했다.<sup>81</sup>

비록 中國에서 비롯된 선비정신이지만 그 道는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의 참된 정신지주가 되었다.

<sup>80</sup> 이화여자대학교 (1980), 「韓國文化史」(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217.

<sup>81</sup>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3), 「한민족 그 불사조인 이유」교수아카데미 총서 2 (서울: 도서출판一念), pp.82-85.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변화와 다양성을 넘어 선비道의 새로운 의미발견과 규범형식의 합리적 재창조를 통하여 선비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비의 道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전통적 도덕가치이면서 인간관계의 象徴으로서 의식속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이다.

#### 4. 太極의 眞理와 理想

太極이라 함은 洪荒한 宇宙萬象의 根源이 되고 母體가 됨을 말함이니 一天을 말함이며, 一地를 말함이며, 一人을 말함이며, 一動物, 一昆蟲, 一物體, 一物質의 微粒子까지도 太極이라 한다.<sup>82</sup>

이 太極의 작용은 天地가 조판된 이래 草木과 禽獸가 生하고 森羅萬象의 品彙가 生하는데 各各 陰陽二氣와 水, 火, 木, 金, 土, 五行이 縱으로 橫으로 열키고 열키여 변화를 일으키고 이 변화에 따라 各各 그 本然의 形態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太極이 나타내고자 하는 現象은 人間은 人間으로서, 物質은 物質로서 動物을 動物로서의 神妙한 眞理에 依하여 各各 天賦之性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人間의 天賦性은 무엇인가? 그것은 人之知五倫이다. 인간은 이것을 의무로서 行하고, 仁, 義, 禮, 智, 信 五常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sup>83</sup>

위에서 論한바와 같이 太極을 中心으로 한 우리나라 國旗는 人間

<sup>82</sup> 吳 在瑋 (檀紀 4288), 「太極旗論」 (서울: 太極出版社), p. 5.

<sup>83</sup> 알 글, pp.29-31.

倫理上 廢할 수 없는 人道와 神秘한 眞理를 內包한 天道와 地道의 大自然을 象徵한 것은 世界 어느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國旗인 것이다.

### 5. 白 色

白이라함은 純潔無垢한 精神으로 人道를 세워 眞, 善, 美로 發展하여 興天地로 合其德하여 指向하고 있다는 意義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民族은 古來로부터 清廉潔白하고 簡素한 生活을 營爲하며 道義와 倫理을 崇尚하고 平和와 自由를 사랑하며 仁과 義를 베풀어 世界萬邦의 人類를 널리 사랑하고 救援하고자 하는 理智的인 民族이라는 것을 象徵한 것이다.<sup>84</sup>

### 6. 無窮花

우리 韓國은 一名 權域이라는 異稱을 갖고 있는데, 이는 곧 燦爛하게 곱다는 意義를 가진 것이며, 無窮花 역시 百花中에 가장 번성하고, 또 가장 長時日을 두고 끊임없이 꽃이 피었다. 지고 지었다 피고 하여 無窮無盡한 享樂을 누리는 꽃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 民族은 이 無窮花와 같이 國家와 民族이 綿綿無窮하게 榮華를 누리여 天地와 더불어 無窮하다는 祥瑞로움을 象徵한 것이다.<sup>85</sup>

---

<sup>84</sup> 앞 글, p.15.

<sup>85</sup> 앞 글, p.17.



## 7. 國語

「太初에 말씀이 계시었으니……」 이것은 요한福音 一章一節에 있는 有名한 文句다. 이것은 우리 人類生活 그 자체가 言語와 말할 수 없이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표현이다. 이것은 미국의 언어학자 Lado의 표현을 빌리자면 ‘언어는 민족의 역사나 문화, 예술등 모든 활동의 목록’<sup>86</sup>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언어란 곧 그 民族의 象徴인 것이다.

신 「훔볼트」학파(Neo-Humboldtian)인 Weisgerber에 의하면 國語는 세가지 動力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정신을 형성하는 힘, 둘째는 民族文化를 지탱하는 힘, 셋째는 역사를 형성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sup>87</sup> 따라서 우리의 언어 또한 ‘民族의 정신이 그대로 발로된 것’<sup>88</sup>이라 할 수 있다. 즉 國語는 우리나라 사람이 지켜온 것 가운데 제일 큰 문화재로서 이것에 의해 새로운 文化를 창조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8. 한글

한글의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통적 정신文化를 표출할 수 있는 門이 비로소 열린 것이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은 訓民敎化政策으로 새 글자의 보급과 經書의 번역사업을 통하여 자신의 理想을 펴기 시작함으로써 한글文化 형성

---

<sup>86</sup>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3), p.150.

<sup>87</sup> 앞 글, p.157.

<sup>88</sup> 앞 글, p.158.

의 터전을 다졌으며, 조선조 이전의 자아 상실적, 문화 역사적 배경에 촉진제가 되어 국가 의식과 자각을 뚜렷이 나타내게 되었다.<sup>89</sup> 즉 한글이 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말이 비로소 글자말 노릇을 하게 되었으며 참된 우리 文學이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9. 판소리

판소리는 우리 겨레의 正統 음악예술의 한 양식으로, 巫歌에 그 원형을 두고 있다. 이것은 世襲巫覡에 의해 창출된 것이며 시나위가 승화되어 온 것이다.

초기의 판소리는 宗教儀式的인 「판놀음」에 속해 있었고, 후에 떨어져나와 독자적인 하나의 예술 형태의 여러 양식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완성된 하나의 한국적인 聲樂에 의한 연극적 형태를 갖게 되었다.<sup>90</sup>

판소리는 庶民과 才人, 廣大가 중심이 되어 그들이 즐기던 文學과 音樂이 주가된 종합예술 형태로서 백성들의 애환이 담겼고, 생활이 표현되어 있으며, 저항과 해학이 깔려 있는 그들의 思想과 感精을 대변하던 것으로서 意義가 있다.

### 10. 民俗舞踊

한국의 무용은 전날 역대에 궁중에서 보존하여온 화려한 궁중정재

<sup>89</sup> 金 每沫 (1984), 「國語와 民族文化」(서울: 集文堂), p. 340.

<sup>90</sup> 강 한영 (1977), 「교양국사 총서.28」판소리 (서울: 교양국사 총서편찬위원회), pp.20-22.

와 전아한 의식 무용의 僧舞가 있고, 민간 무용에 있어서는 대개 4가지로 나누어 순연한 민속무용, 소박한 향토무용, 정재 계통의 전통무용, 가면 무용극에서의 가면무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역대 궁중무용에 있어서는 현재 완전한 재현이 불가능하나·민속무용은 매우 활발하고 안심할 만하다.

민속무용과 궁중무용과의 구별은 무엇보다 作者와 作意에 있을 것이다. 민속무용은 작가와 연대가 아울러 不明한 것이 그 특징이요, 내용은 평민계급의 소박한 생활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자랑할 특색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그 표면에 있어서 궁중무용의 획일적인 공식을 타파하고 자유자재로 개인의 창의를 발휘하고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sup>91</sup>

오늘날 한국무용의 비약적인 보급과 발전은 고전적인 궁중정재의 계승이라기 보다는 실로 민속무용의 蹈襲이며 그 개발인 것을 주목하여야 하며 그 전통을 확립하고 더욱 새롭고 창조적인 개발로 찬란한 한국의 상징으로써 세계에 자랑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韓國의 象徴이 될 만한 要素들을 몇가지 간추려 보았다.

본 章 書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象徴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상징이란 그 民族과 함께 생성되고 변화되고 교체되면서 이제는 영원할 수 있는 것으로 승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

<sup>91</sup> 성 경린 (1976), 「교양국사 총서 24」 한국의 무용 (서울 : 교양국사 총서편찬위원회), pp.215-216.

앞에서 서술한 10 가지 象徴要表는 論者が 지금까지 研究한 바를 토대로 하여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이외에도 書信交換을 통해 얻은 몇 대학 教授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면 호랑이, 탈, 백두산, 까치, 太極무늬와 卦, 부채춤, 저고리, 버선…… 등이다.

1. 各道の象徴的要素抽出

	京畿道	江原道	忠清北道	忠清南道	全羅北道	全羅南道	慶尙北道	慶尙南道	濟州道
가. 山	판악산, 한산	설악산, 대악산, 약산	속리산, 월악산	계룡산, 금백강	내장산, 덕유산	무등산, 영선진	주왕산, 낙동강	지리산, 가야동	한라산
나. 江	한진강, 성강	강양	금백강	감수	금백강	송광사	낙동강	강	
다. 寺刹	전등사	낙신사, 홍사	법주사	감수	금백사	송광사	통법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음사
라. 巖	동구능, 광서능, 서오곡	장릉	칠백의총	칠백의총	만인의총, 익산쌍릉	벽계왕릉	수로왕무덤		
마. 名所	한산농속, 연포속	경고동, 오창평	수안단양, 팔경	사양호, 천암고	광무주개사	이충무공비, 오충석벽영수	망부축태해동	대곡루, 대대래도	담연굴, 갈암포
바. 特産物	강화도화문석, 안동갯고춧가루, 원말, 안양포, 이천자채쌀	나진칠약수	조정약수	금산인삼, 한산세모시연산오갈계보, 천안호공주대추리, 실환개구리참산갈어	진안군인삼	전주합죽, 산담양대사갯무등산수박, 영광굴비, 진도진도개	배구약령시, 사과계영덕계안동죽제품, 울릉도오징어, 호박엿	하동해빈, 진해	서귀포감귤, 구좌음문주란
사. 現代物	신갈인터체인지, 경인공업지역, 반월공업단지, 수원 " " " 부천	화천수력발전소, 춘천수력발전소, 소양강댐, 의암댐	충주비료	대덕연구단지, 충남방직, 대청댐	전주공업단지, 군산합판공장, 이리공업단지	여천공업단지, 여수호남정유	포항제철	울산공업단지, 마산수출자유지역, 창원기계공업단지, 거제조선단지, 울산항구, 영도대안조선공사	
마. 方言	중화적 멋이 풍기는 은은한 말	친근미를 자아내는 말	느리고 길게 말하는 말	투박한 인정 미 담긴 말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발음 특색한 말	무뚝뚝하고도 애교넘치는 말	투박하나 구수한 향내 풍기는 말	된소리가 심하고 길게 늘어지는 말	특이하고 진기한 독자적인 말
바. 民謡	유산가, 발타령, 진드림타령	정선아리랑, 강원도아리랑, 강릉오동부기	양산가, 배틀노래, 탄금대방아타령	천안홍타령, 부여동여타령	군산뱃노래	진도노래, 진도아리랑, 최수영강강술래	안동성주풀이, 포항시집살이노래, 금천과부요	밀양아리랑, 고성동지가, 진주베를가	맷돌노래, 방아노래, 해너노래
사. 經濟構造	근교낙농업 및 공업의 요새	발농사 및 광업지역	경제작물중 심의 농업지역	농업지역	농업 및 수산업지역	농업 및 수산업지역	농업 및 광업지역	농업 및 광업지역	발농사 및 목축업, 수산업, 서비스업지역
바. 飲食	부								
도	경								
京畿道	서해의 보고를 끼고 있어 물자는 풍부하나 별로 알려진 음식이 없으며 소박하고 소탈하다. (양주, 메밀국수, 여주산병, 용인외지)								
江原道	고장의 소박한 기질에 따라 음식도 사치스런 점이 없고 단지 신성한 산의 정기를 산지에서 맛볼 수 있다. (감자, 열무어, 막국수, 산채, 삼죽, 오징어, 석이나물, 옥수수, 총떡, 팔국수, 콩국)								
忠清道	이 고장 사람의 기질이 청풍명월로 표현되듯 사치스럽게 꾸미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음식도 평범하여 혼한 재료를 가지고 소박하게 조리한다. (모과, 무릇, 장, 도토리묵, 무우엿, 늙은호박, 감자아찌, 굴, 생구)								
全羅道	이 고장은 서해, 남해, 수 많은 섬이 있어 해산물에 매우 풍부하며 오곡이 무르익어 식생활이 풍부함으로 상차림은 지나치게 많고 음식에 고명을 예쁘게 얹어 모양을 많이 내며 사치스런 음식이 많다. (갯참김치, 고들빼기, 반지, 어리김치, 가리김치, 미나리, 찌갈, 해태, 비자강정, 예지, 문어오리, 바다장어)								
慶尙道	이 고장은 동남으로 바다를 끼고 있어 해산물이 사시사철 풍부하다. (깨김치, 찌갈, 생선회, 판메지, 단풍은콩잎장아찌, 마른문어쌈, 마산 미더덕젼, 멸치젼과 멸장, 유자청, 진달래술, 엿꼬장, 진주비빔밥, 진주유과, 통영대구, 통장어국)								
濟州道	해산물이 풍부하고 그 조리법이 간단하여 별 양념을 쓰지 않아도 식품 특유의 참맛을 볼 수 있게 한다. (계란전, 고사리, 돼지세끼회, 물망회, 자리회, 진북소라회, 해포)								

## 2. 各道의 象徴的 要素 分析綜合

앞에서 各道의 象徴이 될만한 요소들을 여러 측면에서 抽出하여 보았다. 그 요소들 중에는 전체를 象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부분만을 象徴할 수 있는 것도 있겠다.

論者は 그 추출요소에서 郷土文化를 발견할 수 있었다.

향토문화란 그 郷土의 자연적 여건에서 생활하는데 알맞도록 오랜 생활경험에서 얻은 지혜의 소산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지니는데, 같은 國土內에 있으면서 南과 北, 山村과 平野, 도어나 해안등에 있어서 생활여건은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이 공감을 가지고 전승하여 왔기에 가치가 있으며, 그 향토인들의 이상과 생활 현실, 예술과 신앙 세시 풍속과 관습이 잠겨있어서 소박하고 솔직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sup>92</sup>

우리는 각 地域에 특색있는 향토문화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제대로 보존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국민들의 自文化에 대한 인식과 긍지가 부족했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힘이 적었던 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郷土文化는 바로 그 민족文化의 핵심적인 原型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정신이 성장했고 우주관과 哲學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했음을 절실히 느낀다. 나를 키워주고 가르쳐준 것은 바로 우리의 향토文化인 것이다.

論者は 抽出하는 各道의 상징을 분석 종합하는데 있어서, 論者 나

<sup>92</sup> 任 東權 (1983), 「韓國民俗文化論」(서울: 集文堂), p.75.

름대로의 앞章에서 연구하여온 것을 기반으로 하여 가장 대표할 만한 것을 한가지 선택하여論하고자 한다.

#### 가. 京畿道

우리나라의 新石期 時代는 빗살무늬 土器를 쓰고 農耕을 시작한 것으로 특징지어지는데, 경기도의 한강유역은 우리나라 新石期文化를 中心地로 서울시 암사동, 광주군, 미사리, 남양주군, 동막동을 든다.

三國時代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가 번갈아 가며 한강유역을 확보하려고 격렬한 싸움이 벌였으며, 조선時代로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의 서울이 이곳에 자리잡고 있다. 그런 만큼 이 江의 언저리에는 수많은 歷史의 遺蹟이 있고 북한강, 남한강, 물줄기를 따라 세워진 古蹟과 亭子와 樓閣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한해 평균해서 천백밀리미터가 넘는 비로 수량이 매우 풍부하므로 이물로 上流와 中流에서는 수력발전에 이용하고, 下流에서는 農-工業 및 下水道의 用水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主穀인 쌀의 생산지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강은 전체 길이가 오백십사 킬로미터이고 유역면적이 이만칠천이백육십일 平方킬로미터인 江으로서 길이는 전국에서 네째로 길지만 유역의 면적은 둘째로 넓다. 그리고 京畿道の 대부분의 지역이 그 유역에 속한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sup>96</sup>

論者는 京畿道の 象徴을 이 道の 젓줄인 「한강」으로 삼으려 한다. 어느 道에서나 마찬가지로 江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한강만큼 歷

<sup>96</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1卷, pp.28-39.

史的으로, 文化的으로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多方面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江道 드물것이다.

현재 더럽혀진 江道를 淨化하려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는 江道가 오염되면 될 수록 京畿道 전체에 미치는 惡影響이 심각해지기 때문으로 밝고 깨끗한 江道를 찾으려는 심각한 노력이 필요 불가결한 일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江道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契機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 나. 江原道

南韓의 宗主山脈인 태백산맥은 江原道の 영동과 영서를 가로지르는 山脈으로서 평균 높이가 팔백미터이다.

옛날부터 우리民族의 精氣가 서려있다는 백두산에서 낭림산맥이 남쪽으로 웅장한 산세를 유지하여 뚫어내리고 태백산맥이 江原道에서 그 脈搏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그 精氣를 南·西로 뻗쳐 광주산맥,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차령산맥 태백산…… 다시 소백산맥으로 이어져 속리산, 가야산, 지리산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山줄기를 이루어 놓았다.

이러한 山의 精氣가 땅속 깊숙히 파고 들어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될 에너지의 보물창고가 되었다.

‘천구백팔십년 末의 이 지방 지하자원 매장량을 보면 무연탄은 전국의 67%, 텅스텐은 91.6%, 석회석은 87.8%로 상당한 양이 매장되어 있고, 고냉지 農業이 상당한 규모로 발달했으며, 감자의 재배는 대중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일대의 험준한 산은 꼴짜기의 특별

<sup>96</sup> 뿌리깊은 나무(1983) 第1卷, pp.28-39.



한 물고기와 아울러 山茶와 漢藥材가 나는 곳으로도 나라 안팎에 널리 알려져 있다. 구름지대에는 풀이 많고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는 옥수수가 많이 나 목장을 하기에는 안성마춤이다.

웅장하고 明媚한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등은 관광자원으로도 훌륭하며 강을 이용한 수력발전소는 전국 42%를 차지하고 있다.<sup>97</sup>

산이 83%를 차지하는 江原道답게 주민의 生活文化나 民俗, 經濟 등의 대부분이 산과 관련되어 있다.

江原道는 바로 산의 고장이고 이곳의 주민들은 산사람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江原道の 象徴은 당연 太白山임을 주창하는 바이다.

#### 다. 忠淸北道

忠淸北道는' 예로부터 양반의 고장으로 일컬어져 왔다.

이 양반들은 대부분 서울中心에서 떨어져나와 기본생활 여건이 구비되어 있고 自然의 風貌가 아름다우며 인심 또한 후한 이곳에 집과 農土를 두어 살며 양반의 체통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

양반의 특성이 그러하듯 관직과 문벌을 따지며, 예절을 떠받드는 형식 윤리를 강조하여 체면을 존중하고 개인 감정이나 주장을 억제하였다. 반면 平民들은 순종의 미덕을 보여왔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들이 인심 좋고 착하며 거스르지 않고 탁하지 않으며 젊잖은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忠淸北道の 정신은 이곳 여러지방에 골고루 퍼져있으며 옛 세대에서 새 세대로 繼承하고 있는 정신文化의 소산이다. 그리고 이

<sup>97</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2卷, pp.27-69.

것은 忠淸北道 사람의 生活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言語 信仰 나아가서 모든 文化가치 속에 깃들어서 忠淸北道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 「양반의 기질」이 되었다.

이러한 양반됨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象徴으로는 國家가 지정한 천연기념물인 「속리산의 정 2 품 소나무」가 아닐까 한다. ‘이 소나무는 나이가 육백살쯤이나 된 「솔」로서 천사백 육십사년에 朝鮮의 세조임금이 속리산에 다니러 왔을 때에 「輦」 곧 임금이 탄 가마가 소나무에 걸릴까 걱정되어 ‘輦 걸린다’고 말하자 소나무 가지가 번쩍 들렸다고 하여 「輦걸이 소나무」라는 전설이 있다. 또 임금이 이곳을 지나다 비를 피했다고도 한다. 아물든 이러한 사유로 이 나무에 정 2 품<sup>1</sup> 벼슬이 내렸다고 한다.<sup>98</sup>

「정 2 품소나무」의 이러한 의젓함과 거스르지 않고 탁하지 않은 모습이 이 고장의 산천과 양반됨을 잘 象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라. 忠淸南道

忠淸南道는 칠백년에 걸친 백제文化의 요람지였다.

처음에 마한에 속해 있었던 이곳은 새로 일어난 백제가 마한의 지역을 아우르기 시작하다가 근초고왕 때에 마한을 완전히 통합하니 지금의 忠淸南道 지방은 백제의 영토로 들어가 새로운 歷史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백제의 옛 수도였던 지금의 공주와 부여를 지닌 이곳은 많은 백

<sup>98</sup> 뿌리깊은 나무(1983), p.31.

제의 유적과 유물을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백제인의 예술에 대한 정신풍토가 잘 간직된 곳이기도 하다.

백제藝術의 특징을 흔히 「은아」함과 「조화」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옛 백제의 땅에 사는 사람의 성품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이로써 예절 바름과 점잖음을 말과 행실의 규범으로 삼은 양반의 생활전통과 「화합」과 「중용」이라는 이곳의 전통성품을 낳았다. 겉으로 티내지 않고 뽐내고 나서지 않으면서도 제 할일은 다하는 것이 이곳 사람들의 살아가는 태도이며 은근함 속에서 조화의 멋을 찾을 줄 아는 것이 이곳 사람들이다.

이러한 忠淸南道의 성격을 잘 나타내줄 수 있는 것으로 國寶 346호로 지정된<sup>1)</sup> 논산군 恩律面 관촉사에 있는 「灌燭寺石造彌勒勒薩立像」을 찾았다.

‘이 石佛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佛로서 고려 光宗 16년(986)에 王의 命에 의해 慧明대사가 970년부터 착수하여 穆宗 9년(1006)에 비로소 완성하였다. 총 높이가 약 19.5 m 둘레가 약 9 m의 거대한 크기이다.<sup>99</sup> 그 자태는 頭部가 크고 균형잡히지 않았으나 은근함 속에서 조화의 멋을 풍기며 특히 그 너그러운 웃음은 忠淸南道에 흐르고 있는 옛 백제의 精神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마. 全羅北道

全羅北道는 ‘韓國의 농촌이다’ 이곳의 경지율은 31%로 나라안

<sup>99</sup> “관촉사석조미륵보살입상,” 「大百科事典」, 第1卷, 檀期 4291, p.508.

에서 들쭉로 높으며 논과 밭의 구성비가 7대 3으로 전체 경지에 대한 논비율은 나라 안에서 가장 높다. 농업인구를 보더라도 전체에 55%가 農民이다.<sup>100</sup> 이곳의 산업구조는 60년대 이후 나라 전체의 공업화의 물결에도 그다지 변화없이 農業생산물이 지역 經濟에 차지하는 몫은 매우 크다. 그럼으로써 예전에는 이 땅의 보편 文化였던 이 「農耕文化」는 이제 「産業文化」에 대비되는 특수 文化로서 全羅北道의 고유한 특색을 드러내 준다.<sup>101</sup>

이러한 「農耕文化」의 특색을 잘 전달 할 수 있는 象徴으로서 「農樂」을 생각해 보았다.

農樂은 아주 오래전에 농사와 관련있는 祭天儀式에서 비롯되었다.

옛 기록인 「위지 동이전」에 마한에 대해 ‘이 고장에서는 5월에 모심기를 마친 뒤에나 10월에 농사를 끝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밤낮없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는데 이때의 춤은 ‘몇십 명이 다 함께 일어나 서로 줄을 지어서 높이 솟기도 하고 몸을 낮게 굽히기도 하며 걸어다니기도 하는 것으로 손과 발이 서로 잘 맞았다’는 것이다.<sup>102</sup> 들에서 일하는 「野地文化人」답게 고장 사람들의 놀이로서 「農樂」의 오랜 기원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農樂은 질서가 잡힌 단순한 감각으로는 종잡기 어려운 팽과리, 징장구, 법고 따위가 어우러지는 소리와 찬란한 무질서 속에서 農夫들

<sup>100</sup> 뿌리깊은 나무(1983) 第5卷, p.25.

<sup>101</sup> 앞 글, p.72.

<sup>102</sup> 앞 글, p.73.

은 세박자 또는 여섯박자의 흥겨운 춤을 춘다. 이것은 「野」에서 몸을 써서 논밭을 일구는 農民들에게서 저절로 나온 藝術인 것이다.

이곳 사람들이 스스로를 내세우는 말이 바로 「農樂의 고장」인데, 이처럼 「農耕文化」, 「野地의 文化」를 꾸준히 지켜온 全羅北道의 象徴이 될만 하지 않은가.

#### 바. 全羅南道

全羅南道는 예로부터 「藝鄉」이라 불릴 정도로 각종 藝術방면에 특출한 재능을 지닌 고장이다.

高麗 태조에게서 비롯된 편견과 유배온 사람들이 이루어는 「流配文化」 그리고 탐관오리의 수탈과 외침의 歷史속에서 길러진 저항과 限이 藝術로 승화되었다.

승화된 藝術 중에서 「판소리」는 이 지방을 대표할만 하다.

판소리는 이곳 당골들이 巫歌로 쓰는 육자배기 소리가 발전한 이 고장의 노래로 남도 가사문학을 집성한 신 재효에 의해 정리되었는데, 그가 엮어낸 「춘향가」, 「박타령」, 「토벌가」, 「심청가」, 「적벽가」, 「병강쇠 타령」 같은 판소리에는 서민적인 해악성만이 아니라 그때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 精神마저 담겨져 있다.

이처럼 음악성이 높은 이곳의 민요나 노동요 시나위등은 가슴에 사무치는 限이 말이 되고 말이 소리로 터져나와 승화되어 너그럽고 조급하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익살스럽고 멋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게 된 것이다.

이 판소리의 소리는 음악이지만 그 사실은 文學作品이다. 국문학자 이 병기氏가 판소리를 劇歌라고 표현했듯이 단순한 歌詞가 아니요 연

극의 대사를 겸한 시나리오이다.<sup>103</sup>

흔히 판소리를 동편제, 서편제로 나누고 全羅南道의 판소리는 서편제에 든다고 분류하나 엄밀히 말해 기교로 구분하면 동편제나 서편제나 모두 전라남도의 소리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판소리는 限만은 全羅南道사람들의 말이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소리로 승화한 것이니, 이곳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함축성있게 나타낼 수 있는 象徴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 사. 慶尙北道

慶尙北道가 한 테두리의 지역文化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新羅라는 國家사회를 이루면서부터 였고, 新羅가 古代 韓半道를 통일한 뒤로 신라文化는 우리 전체文化 전통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新羅時代를 지나 高麗와 朝鮮時代를 거치는 동안에 이 지역은 地域文化로 남게 되었다. 그렇지만 慶尙北道가 中心이 되어 빚어놓은 新羅文化는 그 자체로서 훌륭한 遺産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나라의 文化傳統에 녹아 들어 뚜렷한 힘을 떨쳐 왔고 오늘에 慶尙北道를 특징짓는 地域文化의 바탕을 이루어 왔다.<sup>104</sup>

이곳의 훌륭한 遺産中 地域文化의 특성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것은 論者의 견해로는 陵이나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遺物들이 아닐까 한다.

<sup>103</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6卷, pp.69-72.

<sup>104</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7卷, p.71.

慶尙北道일대의 陵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주로 경주일대에 밀접해 있는 積石木槨무덤이고, 다른 것은 넓고 거대한 만들어진 石室무덤이다. 그 속에 많은 副葬品들이 散在해 있는데 新羅의 寶冠이나 유리제품은 地域文化의 遺産으로서 대표할만 하며, 특히 寶冠은 찬란했던 그 時代의 모든 것을 象徵하고 있다.

寶冠은 임금같은 높은 이들이 머리에 쓰던 冠을 일컫는데 금관총을 비롯하여 금령총, 천마총, 98호총, 대구 달성고분, 양산 부부총등에서 출토되었다.

冠모양의 기본구조는 금관을 오려 만든 대륜 곧 모자테 위에다 그 앞쪽으로 漢子の 「出」子 모양의 입식 두개를 세워 붙인 것이다. 그리고 대륜과 입식에는 영락 곧 둥글게 오린 얇고 작은 금판과 曲玉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달아 단조로운 틀을 화려하게 꾸며 놓았다. 이러한 形成의 寶冠은 서아시아에서 시작되어 東쪽으로 널리 전파된 樹木장식 또는 사슴뿔 장식의 冠에 起原을 두고 있다고 하나 다른 인접한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新羅사람들의 고유한 창의력이 깃든 것이다.<sup>105</sup>

王道 자체의 象徵은 절대왕권을 나타내는 王의 차림이며, 그 중에서도 王冠은 王權과 國力, 그리고 일체를 象徵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新羅 더 나아가 慶尙北道の 象徵은 金冠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

<sup>105</sup> 양 호일, “韓國SYMBOL 考察,” 「디자인포장」, 합본第5卷 (1974), p.40.

### 자. 慶尙南道

慶尙南道는 山과 江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어 독립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님과 함께 태평양과 아시아 대륙의 關門과도 같은 韓半道의 길목을 이루고 있어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세계문물의 흐름이 가장 빨리와 닿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곳의 자연환경은 自主的이고 閉鎖的인 生活樣式을 오랫동안 지켜오게 하면서도, 現代의 상공業과 물질 文明을 민감하게 수용하여 公業 韓國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특히 주목이 가는 것은 造船所로서 이것은 시작된지 10여년 만에 世界에서 둘째가는 造船國으로 자란 것이다.

이것은 아무 연고없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造船기술의 傳統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象徴的인 것으로는 「거북선」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거북선은 우리 겨레의 자랑이다. 東西古今의 歷史에서 그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와 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배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거북선은 우리 先人들의 탁월한 창조적 傳統 속에서 태어난 위대한 軍船이다.<sup>106</sup>

고래로 우리 民族은 독특한 文化를 창조하는 가운데 많은 利器를 개발해 왔지만 거북선은 그중에서도 으뜸가는 것에 틀림이 없다.

### 차. 濟州道

濟州道 한북판에는 높이가 1,950미터인 한라산이 솟아 있어 한라

<sup>106</sup> 金 在瑾 (1978), 「거북선의 神話」 (서울: 正宇社), p.7



산이 제주도이고 濟州道가 한라산이라고 할 만하다.

한라산은 時代에 따라 부악, 원산, 선산, 두무악, 영주산, 부라산, 혈망봉 같은 이름으로 불렸다. 이 山은 主峯인 부악을 中心으로 여기저기에 높고 낮은 봉우리가 삼백육십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분화구를 갖고 있다. 가장 큰 것은 부악의 분화구인데 둘레가 2킬로미터쯤 된다. 이 안에 늘 물이 고여 있는 백록담이 있다.

한라산은 높이에 따라 열대, 온대, 한대의 식물 1,700여종이 분포되어 있어 植物의 寶物섬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중허리에는 육백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넓은 풀밭이 펼쳐 있어 크고 작은 목장이 120여개가 산재해 있다. 이러한 한라산을 中心하여 動-植物이 있는 山林과 계곡기암과 못, 기생화산과 분화구, 동굴과 초원 그리고 바닷가의 기암과 폭포, 백사장과 딸린섬의 경치는 제주도가 아니면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훌륭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60年代 초반이었고 1973년 제주도 「관광 종합 개발계획」이 확립되므로 본격적인 착수작업이 시작되었다.<sup>108</sup>

관광자원중 단연 으뜸이 되는 것은 이섬 한복판에 우뚝 솟은 한라산이다. 따라서 관광 주도형의 濟州道에 있어서 대표 象徴은 물론 한라산이며 옛 탐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역사 유적, 生活文化 그 民俗과 精神文化가 다 이 山을 중심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論者는 생각 한다.

<sup>108</sup> 뿌리깊은 나무 (1983) 第9卷, pp.20-49.

## V. 象徴의 視覺的 表現 方向

지금까지 考察한 象徴들의 바람직한 視覺化를 위한 方向設定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은 韓國의 傳統的 表現과 더불어 그에 따르는 現代的 表現 要素이다.

傳統이라 함은 畵畵들은 과거의 方式이 아니라 옛부터 내려오는 현재의 것이다. 또한 그것은 미래에도 계승될 것이므로 傳統 안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엮 볼 수가 있다.

本章에서 論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현재에 있어서의 傳統的 表現 方向인 것이다. 즉 과거 傳統表現에 現在의 表現이 가미된 것, 우리 선조의 '아름답고 훌륭한 表現을 계승하면서도 現代에 어색하지 않은 우리의 것을 찾고자 하는 작은 바람의 시도이다.

### A. 韓國의 傳統的 表現

#### 1. 時代變遷에 따른 表現特色

여기서는 주로 金元龍氏의 견해를 참고하려 하는데, 학계에서는 이것에 대해 많은 異見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論者또한 이 견해에 대해 별달리 異見을 제시할 것이 없고, 본 論文에 도움이되므로 적용하고자 한다.

#### 가. 先史時代

선사시대의 표현은 주로 器物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성격이 소박하면서 象徴的·抽象的이고 북방계 美術의 線을 따르고 있다.'

### 나. 三國時代

(1) 高句麗-華北에서 일어났던 북방 遊牧民들의 성격인 예리하고 다이내믹한 '표현에 힘입어 互當文, 古墳壁 등에서 움직이는 線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2) 百濟-부드럽고 평화스런 南朝의 영향으로 '평화롭고 樂天的이며 여성적이고 우아한' 人間味 넘치는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3) 新羅-北方의 영향으로 '소박하고 古拙하고 완고한' 성격을 土器에서 나타내고 있다.

### 다. 統一新羅時代

唐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三國時代의 잠재적·보수적 저력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자연스런 표현에 '세련된 調和'의 성격을 낳았다.

### 라. 高麗時代

宋나라의 근대화된 文化에 영향을 받은 일부 관료집단과는 달리 百濟性의 흐름의 결과로 인한 '無作爲의 創意와 허점이 있는 따뜻한 人間味'를 高麗磁器를 통해 엿볼 수 있다.

### 마. 朝鮮時代

유교의 禁欲主義·中庸思想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自然主義가 반영되어 無飾·無華·無味の 철저한 平凡의 眞味를 나타내고 있다.<sup>109</sup>

## 2. 表現特色의 要因

韓國의 傳統的 表現에 있어서 그 要因이 될만한 背景들은 다시 한

<sup>109</sup> 金 元龍 (1978), 「韓國美的 深究」(서울:悅話堂), pp.12-26.

번 살펴봄으로 해서 그 要因을 좀더 명확하게 판단하고자 편의상 몇 단계로 나누어 요점만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 가. 自 然

韓國은 山高水麗하여 高麗라 일컬어져 왔고, 아침이 맑은 나라이니 朝鮮이라 불려 왔었다. 韓國의 自然은 어디에 요란스럽게 우뚝 선 高嶺이 어서 위압하거나 滔滔히 흐르는 大河가 있어 웅장한 느낌으로 사로잡지 않는다. 바다는 모두 內海로서 평화로운 기분을 자아내니, 한국인은 남달리 자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살아왔다.<sup>110</sup>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살아온 民族에게 있어서의 自然에 대한 사랑이나 동경, 몰입하고자하는 마음은 당연한 歸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韓國人의 表現에 있어 「自然主義」는 필연적이다.

#### 나. 經 濟

韓國의 기본 經濟는 과거에 있어서나 현재에 있어서나 農業이다. 따라서 農耕民族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농경민의 生活은 天災地變이 일어나지 않는 한 노력한 만큼의 보답을 大地로부터 받는다. 그러므로 定着的·平和的이며 保守的·退嬰的이다.<sup>111</sup>

따라서 농경민으로서의 表現은 당연히 구수한 흙냄새가 풍겨나오고 소박하며 솔직한 것이다.

#### 다. 社 會

傳統韓國 社會의 특징은 中産階級이 존재하지 않았고, 소수의 上層人과 대다수의 農民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平民文化 발전의 소지가 이

<sup>110</sup> 趙 要翰 (1983), p.176.

<sup>111</sup> 앞 글, p.28.

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해서 近代化하지 않고 소박한,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상태로 남게된 것이다.<sup>112</sup>

#### 라. 宗 教

韓國人의 현실에 대한 체념, 숙명에 대한 경탄할 만한 인내는 여러 전쟁에 시달리고 惡政에 시달리면서 宗教에 최후 의존해 온 긴 세월 사이에 형성된 人生觀일 것이다. 厭世와 諦念은 일견 悲觀과도 같지만 그것을 究極으로 끌려가면 解脫과 樂天으로 통하게 되는 법이다. 그리하여 결국 自然을 직시하고 安心立命하는 解脫者的 경지를 열어준 것이다.<sup>113</sup>

### 3. 傳統的 表現의 綜合

앞에서 언급한 時代별 表現特色중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要素들을 뽑아 기술·종합하여 全體의 特色을 파악하고자 한다.

#### 가. 先史時代

北方族이 지니고 있는 강직하고 단도직입적인 소박성

#### 나. 三國時代

(1) 高句麗-경쾌한 리듬과 裝飾性부족 完壁에 대한 潔癖의 결여

(2) 百濟-인간적인 것

(3) 新羅-완전한 것에 대한 무관심, 무집착

다. 統一新羅時代-正義的이고 現實的이고 自然的인 것

#### 라. 高麗時代

無作爲의 創意. 허점이 있는 따뜻한 人間的인 것

<sup>112</sup> 앞 글, p.30.

<sup>113</sup> 앞 글, pp. 30-31.

## 마. 朝鮮時代

### 自然主義的인 것

韓國의 傳統的 表現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自然에 대한 동경」 다른 나라의 自然이 아닌 韓國的 自然에 대한 동경심의 表現이라는 論者는 생각한다. ‘여기에는 思索을 요구하거나 人工의 냄새 피우는 抽象과 變化가 없다. 自然에는 오직 自然의 美가 있을 따름이며, 美醜를 인식하기 이전, 美醜世界를 완전 이탈한 美가 있을 따름이다.’<sup>114</sup> 이같은 경향은 앞서서도 論하였듯이 우리 民族은 오랜 傳統의 農耕的 社會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임과 동시에 民間信仰으로 대표되는 샤머니즘의 약 60%가 自然神系의 神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때, 우리 民族에게 있어서의 自然에 대한 동경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여서 우리나라의 地理的 特성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兩面性의 성질은 高句麗의 대륙적인 面과 百濟나 新羅의 해양적인 面에서도 나타났으며 후에 이 兩面性은 조화를 이루어 우리의 表現속에 간직되어 왔다. 이것은 時代와 分野에 따라서 表現의 形態가 바뀌고 強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韓國的 表現의 주변에 흐르는 「자연에 대한 동경」과 「兩面性의 조화로움」은 변함이 없다.

## B. 傳統的 表現의 現代的 意義

### 1. 傳統의 意義

‘傳統이란 傳來的인 生活과 文化의 樣式, 궁극적으로 말해서 전래

---

<sup>114</sup> 앞 글, p.45.

적인 사고와 행동의 方式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115</sup>

傳統에는 필연적으로 시간·공간·주체의 세가지 문제가 따른다. 첫째,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은 우리의 風土, 우리의 歷史, 우리의 生活속에 오랜 시간을 두고 생성되고 전승'된 것을 말한다. 둘째, 공간의 문제에 있어서 '그 民族의 傳統은 공간적인 한계가 있다. 그 民族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형성되고 전승한다.' 셋째, 주체의 문제로 '傳統은 主體者로서 民族이 있으며 傳統은 民族의 生活속에서 생성된다.'<sup>116</sup>

이처럼 傳統이라 함은 한 民族의 모든 面 속에서 생성되고, 계승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며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선별하여 받아들이고 소화하여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主體로서의 意義가 있다.

## 2. 傳統의 現代的 意義

現代에 있어서 傳統은 因襲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因襲이란 좋지않은 風習으로 버려야할 것이지만 傳統은 새로운 生命의 원천으로서 좋은 뜻으로 살려서 이어 받아야할 風習이요 方法이요 눈인 것이다.

과거에, '새로운 傳統의 수립이란 이름아래 우리의 歷史的 風土와 역사적 현실에 맞지 않는 異質的인 制度를 注入하기 위하여 先破壞, 後建設을 強調하는 모든 外來的인 것이 항상 民族主義, 保守主義, 獨立主義가 지니는 傳統主義, 主體主義, 聯合主義를 敵으로 돌리고, 世界

<sup>115</sup> 深 秉祐 (1983), 「世界史 속의 韓國」 (서울: 深求當), p.193.

<sup>116</sup> 任 東權 (1983), pp.53-55.

主義, 進歩主義, 聯合主義를 표방하는 것' 117 을 익히 보아왔다.

이는 매우 科學的이고 진보적인 論理같이 보이지만 傳統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오해인 것 같다.

우리의 民間信仰인 샤머니즘만 하더라도 끝없이 외래 고등 宗教의 침입에도 滅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며 지금까지도 우리의 生活속에 內在되어 있는 것은 앞서서 언급 했듯이 외래 宗教가 아무리 체계적이고 論理的이라도 우리 체질에 맞지 않는 면은 거부하고 우리에게 맞게 수정하면서 지켜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傳統이란 歷史的, 文化的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傳統을 잘못 이해한다면, 이 땅에 새로운 傳統의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고 外來的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外來的인 傳統을 그대로 우리의 傳統으로 삼을 수는 없고 그것은 언제나 우리 民族集團의 공동한 사고방식인 文化와 융합 變成됨으로써만 새로운 傳統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8 즉 良質의 우리化된 共通因子를 抽出하면서 傳統의 歷史的 文化的 意義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傳統을 찾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바로 文化의 기본적 主體意識과 歷史的 價値觀을 신중히 檢討하고 이를 바탕으로 外來的 文化를 선별하여 받아들임으로써 낙후된 것을 극복하고 좀더 나은 우리의 傳統을 찾아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主體 및 價値로 삼아야 할 것이다.

117 趙 芝薰 (1976), p.215.

118 앞 글, pp.213-221.



### C. 바람직한 韓國的 象徴을 위한 視覺表現 方向

韓國의 상징 表現의 바람직한 方向을 설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은 첫째로 2000 年代를 향한 우리의 자세일 것이다.

미래의 세계에 대한 理性的 洞察과 分析은 일관성있는 表現 方向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現代社會研究所가 1982 年에 설정한 2000 年代를 향한 韓國人의 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바람직한 社會象 - 産業社會의 합리성과 인간다운 삶의 가치가 다 같이 구현된 多元化된 社會
2. 바람직한 經濟象 - 經濟성장을 통한 自立的 生産구조와 국민복지가 확립된 經濟
3. 바람직한 政治的 - 民主化된 政治
4. 바람직한 文化象 - 民族文化를 간직한 새로운 文化
5. 바람직한 科學象 - 의식의 합리화와 기술 수요충족 및 선진기술이 수용발전된 科學<sup>119</sup>

둘째로 우리文化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다. 民族文化에 대한 矜持가 없다면 우리의 表現은 창조될 수 없기 때문이다.

「人間愛」와 「自然主義」에 입각한 우리의 고유한 表現은 朝鮮末期에 개화파에 의해 추진된 근대화 운동이 실패함에 따라 구미文化를 모방한 日本 근대文化에 의해 식민지 文化로 轉落하게 됨으로써 民族文化에 대한 自己卑下感과 열등감에 빠져, 진정한 表現을 할 수

<sup>119</sup> 現代社會研究所(1982), 「2000 年代를 향한 韓國人像」(서울: 現代社會研究所), pp. 17-101.

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民族的 자부심을 갖고 傳統文化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로 주체성의 確立문제이다.

現代 韓國社會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급격한 社會 변화로 인한 文化的 주체성과 方向性的 혼란이다. 개항이후 밀려든 서구文化, 특히 6.25 동란후 美文化에 영향받은 物質萬能主義는 우리민족이 험난한 歷史의 濁流속에서도 꾸준히 지켜온 얼과 文化를 소홀히 만듦에 따라 方向性 또한 일시적 현상이겠지만 모호해 지고 있다.

이것은 現代의 풍조가 主體性을 유지시키는 정신文化를 소홀히 하고 물질文化, 위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민족의 주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物質文明과 함께 精神文化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表現에 앞서 알아야 할점 몇가지를 간추려 보았다.

이것은 現代에 살고 未來에 살 우리민족이 갖추어야 될 점이기도 하다.

世界가 점점 복잡해 짐에 따라 主體性的 확립은 어려워지고, 分化되어 흩어져 가기 때문이다. 人間의 心性 또한 求心點을 잃고 방황함에 따라 소요와 소외, 갈등 등이 야기되어 침체되고 혼란된 상태에 머물게 됨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象徴의 역할이 자못 큼을 論者는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바람직한 象들을 이루기 위해서도 넓게는 世界와 國家의, 좁게는 한 地域의 象徴이 필요한 것이다.

象徴은 누누히 언급하지만 世界나 國家 地域등을 「대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共同意識과 사명감을 갖고 뭉칠 수 있는 求心點으로서의  
第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象徴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 象徴이 갖추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우리 나라는 世界的으로 우수한 文化遺産과 觀先資源, 그리고 藝術  
的 能力이 풍부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알려져 있고, 얼마나 많은 人類에게 호소력을 지  
니고 있는지 의문시 되며, 우리가 象徴을 가지고 있다면 밖으로는 국  
위선양과 안으로는 우리민족의 또 다른 긍지가 될 수 있어야만 한  
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자면 불란서 < Eiffel 塔 >, 네덜란드 < 風車 >,  
英國 < 국회의사당 시계탑 >, Egypt < pyramid > ... 以上과 같은 象  
徴은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있는 터이다.

또 한가지 특별히 主眸해야 할 것은 固有素와 外來素의 적절한 혼  
합에 의한 現代性의 문제이다.

오늘날 우리의 外的 生活方式이 西洋式으로 변했다고 해서 西洋人  
이 된 것은 아니다. 발전해 나가는 지구의 一員이면서 남과 뒤떨어  
져 古代의 生活環境과 方式을 그대로 고수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  
다.

表現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겠다. 새로운 것의 수용은 결코 傳  
統的 固有素의 파괴가 아니라 보다 나은 表現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表現感覺은 우리民族의 生活智慧와 經驗의 畜積 등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새로운 外來素를 받아들인다 해도 固有素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主體性을 지닌 表現은 우리의 固有素를 지니면서 外來素를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는 世界素를 포함하여 보편성을 띤 現代的 表現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結論적으로 바람직한 韓國의 象徴 表現方向은 첫째로 바람직한 미래상과 民族文化에 대한 긍지 및 주체성을 확립하고 둘째로 象徴으로서의 역할과 技能性을 파악한 후 그 表現에 있어서의 諸 문제들을 研究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世界를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能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

世界는 좁아지고 있다. 그 속에서 다양한 文化의 교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各 文化는 混合, 融和하여 凡 世界的인 公同의 文化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부 文化는 이 속에 아주 消滅되어 民族的 悲運을 낳기도 한다.

2000 年代를 향하고 있는 現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世界에 자랑스럽게 알려야 할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것」을 찾고 「우리의 것」을 알리기 위한 契機를 삼고자 하는 부분적인 시도의 하나로 우리의 象徴的 要素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 그 目的이 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좀더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니, 이에 따른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요청되었으나 論者의 能力이 깊이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연구 結論에 의한 論者의 견해로, 象徴이란 고차원적인 意味를 지니고 높은 곳에 있어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어디 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山도 좋고 江도 좋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民俗도 좋고... 民族과 함께 숨쉬고 生活하며, 친근미를 느끼고 그 것에서 民族의 魂과 意味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論者는 이것을 찾기 위해 韓國의 思想과 韓國의 文化 더 나아가 각 地域의 여러 측면에서 能力이 닿는 한 넓고 깊게 접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너무 방대해질 우려도 염려가 됐으나, 오히려 부족

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우리民族에게 있어 象徴이 象徴으로서의 위치에 서서 役割을 수행하기까지는 歷史的, 宗教的, 文化的, 經濟的 政治的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아왔기 때문이다.

世界 속에서의 韓國의 象徴은 그 地域 공동체에 알맞게 繼承, 發展된 개성있는 傳統과 美風良俗등에 따라 文化的 긍지와 특성을 살리는 가운데서 찾을 수 있었다.

論者が 제시한 象徴들은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여러 문헌을 통해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을 추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속 더 많은 研究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다음으로 表現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먼저 韓國의 傳統과 傳統的 表現을 통해, 우리 先祖들의 意識과 美感覺을 살펴보았다. 그 結果 「人間愛」와 「自然에 대한 憤懣」등을 발견할 수 있었고 모든 藝術的 表現이 다소 時代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 脈의 흐름은 같이 하고 있음을 또한 발견하였다.

다음 문제는 이러한 傳統素와 外來素의 가치 설정에 대한 것이었다. 독자적인 傳統的 表現 또는 外來的 表現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傳統文化가 外來文化와 접하면서 發展해 가듯이 韓國的 表現도 이와 같은 것이다. 적절히 두 要素가 안배어서 創造的이고 現代感覺에 알맞는 表現으로 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結論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結論을 얻은 論者は 各 象徴들의 視覺化 작업에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와 各道의 全體를 다룸으로 해서 한 地域에 대해 좀더 깊이 있는 研究를 진행시키지 못했으며, 연구자료 문제에 있어 韓國文化史 측면의 문헌이 주로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表現을 하기 위한 구체적 조

형요소 즉 線, 色, 形態등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의 미비와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현장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객관성있는 연구를 진행시키지 못한 점이다.

비록 미숙한 연구이지만 이것이 자극이 되어 더 나은 研究가 이分野에서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參 考 文 獻

- 姜 泰成 (1976), “한국인의 조형감과 그 표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강 한영 (1977), 「교양국사 총서 28」, 판소리, 서울: 교양국사 총서편찬위원회.
- “관측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大百科事典」, 第1卷, 檀期 4291, p.508.
- 국립건설연구소 (1972), 「韓國地圖小史」.
- 國民倫理學會 (1983), 「韓國의 傳統思想」, 서울: 螢雪出版社.
- 국제문화재단 (1982), 「韓國의 思想」, 서울: 時事英語社.
- 金 得梔 (1963) 「韓國 宗教史」, 서울: 에펠 出版社.
- 金 元龍 (1978), 「韓國美의 深究」, 서울: 悅話堂.
- 金 仁惠 ( ), “Symbol 의 조형적 표현의 사회화에 관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金 仁會 (1982), 「韓國巫俗의 綜合的 考察」, 서울: 고려대학교 민속문화 연구소.
- 金 在瑾 (1978), 「거북선의 神話」, 서울: 正宇社.
- 金 每沫 (1984), 「國語와 民族文化」, 서울: 集文堂.
- 뿌리깊은 나무 (1983), 「한국의 발견」, 第1卷, 第2卷, 第3卷, 第4卷, 第5卷, 第6卷, 第7卷, 第8卷, 第9卷, 서울: 브리टे니커 회사
- 성 경린 (1976), 「교양국사 총서 24」, 한국무용, 서울: 교양국사 총서 편찬위원회.
- 세계평화 교수협의회 (1983), 「한민족 그 불사조인 이유」, 교수아카데미 총서 2, 서울: 도서출판一念



- 시사영어사 (1982), 「韓國의 民俗文化」, 서울: 시사영어사.
- 시사영어사 (1982), 「韓國의 社會」, 서울: 시사영어사.
- 시사영어사 (1982), 「韓國人的 生活風習」, 서울: 시사영어사.
- 양 호일 (1972), “韓國의 SYMBOL 考察” 「디자인 포장」, 합본 第5卷
- 深 秉祐 (1983), 「世界史 속의 韓國」, 서울: 探求當.
- 吳 在璿 (檀期 4288), 「太極旗論」, 서울: 太極出版社.
- 宇 石 (1982), 「韓國思想의 深層研究」, 서울: 도서출판 宇石.
- 尹 泰林 ( ), 「의식구조상으로 본 한국인」, 서울: 玄岩社.
- 李 相權 (1981), “近代美學에서의 「象徴」의 概念,”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화여자 대학교 (1980), 「韓國文化史」,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 任 東權 (1975), 「韓國의 民俗」, 서울: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 任 東權 (1983), 「韓國의 民俗 文化論」, 서울: 集文當.
- 趙 要翰 (1983), 「藝術哲學」, 서울: 經文社.
- 趙 芝薰 (1976), 「韓國文化社 序說」, 서울: 探求當.
- 催 明官 (1977), 「意味의 哲學」, 서울: 現代思想社.
- 칼 구스타브 융 ( ), 「무의식의 상징」, 李 符永 (譯), 서울: 集文當, 1983.
- 韓 相福 (1983), 「한국인과 한국문화」, 서울: 신설당.
- 現代社會研究所 (1982), 「2000年代를 향한 韓國人像」,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 洪 哲洗 (1982), “韓國的 思愉와 傳統住居에 관한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黃 慧性 (1971), 「韓國의 味學」, 서울: 平和當.

## ABSTRACT

The Study on Symbols of Korean Thoughts and Culture.

-Direction to Symbols for the Visual Expression of  
Country with in South Korea-

Cha, Hyun Ju  
Dept. of Applied Art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 question whether we could acknowledge, express our tradition and our culture correctly is on its summit of research in various ways.

In my opinion, this is the most natural phenomena and a genuine direction to should be established.

At this point, though our country has many internal and external difficulties I would like to stress that the above work mentioned is fundamental and essential to build our future culture on.

The meaning of our work to search for ours is up to the discovery of our people's pride and dignity, establish of our subjectivity, and even strengthen our relationship among us.

More over, we have to acknowledge our country most correctly to the external world.

In order to perform this work, designing field has variou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which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Amongst this, the core of research is to find the method through the sense of sight and for this many studies on substantial aspects have to be accomplished.

Consequently, in this treatise, in order to visualize something ours, the question of symbolism as a link is considered because symbol as a representative function becomes the base of all the visual expression.

For this purpose, I have divided treatise into 4 different part.

In chapter II, by examining the thoughts that had great spiritual influence to our people, we could understand the flow of our spirit especially the great meaning to the belief of shamanism.

In chapter III, by illuminating the various aspects of the detailed background of our over-all culture, We discovered the very existence of the elements and background that is intimately connected to our modern life.

In chapter IV, as discussed in II and III through the foundation of our thoughts and culture the involved elements could be extracted, analyzed and summarized, I have come to

knowledge that our symbols live within our people in their everyday life.

As a result our country achieved the following symbols.

1. River Han in Kyung Gi Do.
2. Mount Tae-Beak in Khang Won Do.
3. Chung the second pine tree in Choong Chung Buk Do.
4. Standing Buhda Made of Stone in Kwan Chok Sa in Choong Chung Nam Do.
5. Argricultural music called Nong Aak in Chun La Buk Do.
6. Dramatic Song called Pan-so-rhee in Chun La Nam Do.
7. Golden Crowd in Kyung Sang Buk Do.
8. Turtle Ship called Geo Buk Sun in Kyung Sang Nam Do.
9. Mount Han La in Che-Ju Island.

In chapter V, as a baseis' to establish a correct direction to symbols of visual expression resulted the establishment of the most Korean-like direction of visual expression by examining the meaning of its tradition and its modern meaning.

#### Research results

1. Established most future - like type.
2. Established pride and dignity on our culture.

3. Recognized that subjectivity should be established first.

In conclusion, research on our symbol up until now becomes a basis to the unity of our people and hope that it acts as a motivating moment of informing our country to the world.